

## 95학년도 국어국문학과 학술답사 보고서

- 구비문학반 학술답사보고서
- 현대작가반 학술답사보고서
- 방언반 학술답사보고서
- 문헌반 학술답사보고서



## 구비문학반 학술답사 보고서

### 1. 답사 지역 및 조 편성

구비문학반은 1995. 4. 26(수)-4. 29(토)까지 3박 4일 동안 충청남도 청양군 일대를 답사하여 설화, 민요, 무가 등 구비문학 자료를 조사·채록하였다. 지도교수 서대석 선생님, 김진세 선생님, 이상택 선생님, 권두환 선생님의 지도·인솔하에 학부생, 석·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 등 모두 32명이 참가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조를 편성하여 조사 활동에 들어갔다.

1조: 서대석 선생님, 박종성(박사과정수료), 김현식(석사과정), 김정곤, 신현재(학부과정)

2조: 최원오(박사과정), 조희경(석사과정), 김형금, 임지오, 정진희(학부과정)

3조: 원두환 선생님, 정재민, 송팔성(박사과정), 이대효, 한길연(석사과정), 이영석, 곽지윤(학부과정)

4조: 정대진(박사과정), 손태도(석사과정수료), 조황옥(석사과정), 류하영, 하시모토 치호, 김온아(학부과정)

5조: 임주탁(조교), 최현재(박사과정), 장유정(석사과정), 김영실, 이은주, 이영옥(학부과정)

6조: 김진세 선생님, 이상택 선생님, 송성옥(박사과정 수료)

### 2. 조별 활동 내용 및 자체 평가회

1조는 청양읍 일대의 구비문학 자료를 조사 채록하였다. 4월 26일 오후에는 청양읍내 경로당에서 전효진, 박형규, 박문태, 최병천, 김영애씨 등으로부터 시조창과 민요 <경복궁타령>, <창부타령>, <노랫가락>과 설화 <김장생 출생담> 등을 조사 채록하였다. 4월 27일 오전에도 같은 경로당에서 안효석, 유옥현, 이상금씨 등으로부터 민간 신앙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어 설화 <왕신 이야기>, <삼신 이야기>, <윤방망이 이야기>, <비봉산 이야기> 등을 채록하였다. 오후에는 또 다른 읍내 소재 경로당에서 설화 <의자왕 나발터 고개 이야기>, <업박산 산신당 전설> 등과 민요 <달구지 노래>, <지신밟기 노래> 등을 조사 채록하였다. 4월 28일 오전에는 조별 활동의 평가회를

가지고 오후에는 전체 집결지인 칠갑산 민박 장소에 집결하였다.

2조는 운곡면, 대치면 일대의 구비 문학 및 문헌 자료를 조사 채록하였다. 4월 26일 오후에는 운곡면 위라리에서 최병현씨로부터 설화 <유청도와 명장수> 등과 민요 <창부타령>, <어랑타령>, <양산도>, <벼베기 노래>, <타작 노래>, <나비질 노래> 등을 채록하였다. 4월 27일 오전에는 운곡면 모곡리 표절사를 탐방하여 문헌 자료를 조사하고 오후에는 대치면 주정리의 전종돈씨로부터 단가 <만고강산>, <토끼화상> 등과 설화 <내복에 산다>, <명당 팔러다닌 성거사>, <노력해서 얻은 복> 등을 채록하였다. 4월 28일 오전에는 장곡사를 탐방하고 오후에는 칠갑산 집결지에 합류하였다.

3조는 화성면, 남양면 일대를 답사하여 구비문학 및 문헌 자료를 조사 채록하였다. 4월 26일 오후에는 먼저 우선 화성면 신정리 청대사, 구재리 상의사, 수정리 임승엽씨 댁의 소장 문헌을 조사하였다. 특히 임승엽씨는 『성현선생문집』을 비롯하여 고전소설 『삼국지』, 『옥루몽』 등을 소장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화성면 수정리 이창근씨, 이기남씨, 임길호씨 등을 만나 민요 <자장가>, 설화 <달라지 고개>, <내복에 산다>, <깍지바위> 등을 조사 채록하였다. 4월 27일 오

전에는 청양읍내 안선영씨의 소장 문헌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오후에는 화성면 소재 경로당에서 설화 <효자 시험>, <신유복전>, <안동 김씨 시조의 유래>, <이몽학 전설> 등을 조사 채록하였다. 4월 28일 오전에는 청양군 일대의 고적, 장곡사와 무량사를 탐방하였으며, 오후에는 전체 집결지로 합류하였다.

4조는 청남면, 장평면 일대의 구비 문학 자료를 조사 채록하였다. 4월 26일 오후에는 청남면 천내리 마을 회관에서 전용근, 전동진, 윤종구, 윤종근, 김태제씨 등으로부터 민요 <모심기 노래>, <김매기 노래>, <타작 노래> 등을 채록하였다. 4월 27일 오전에는 청남면 청소리 유상수, 이춘화, 우제철씨 등으로부터 설화 <묘자리에 얹힌 이야기>, <정도 전과 우씨 집안 내력> 등을 조사하고, 오후에는 김만영, 김용환, 김희진, 윤배근, 윤병갑, 윤영설, 유진영씨 등으로부터 설화 <애기 업은 바위>, <온미산>, <열녀문 이야기>, <짚으로 범인 찾기>, <재치 있는 사람 이야기>, <조조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등과 민요 <모심기 노래>, <논매기 노래>, <타작 노래>, <도리깨질 노래>, <풍년가> 등을 채록하였다. 4월 28일 오전에는 종합 토론회를 가지고 오후에는 전체 집결지인 칠갑산 민박 장소에 집결하였다.

5조는 청양군 정산면, 목면 일대를 답사하여 구비문학 자료와 문헌 자료를 조사 채록하였다. 4월 26일 오후에는 윤홍수씨 댁을 방문하여, 가사 <농가월령>을 조사하고, 목면의 이길상씨로부터 민요 <불무애기>를 조사 채록하였다. 4월 27일 오전에는 목면 중계실 이길상씨 댁을 방문하여 고전소설 「설용전(설홍전의 이본)」을 비롯한 문헌을 조사 수집하고, 우장로로부터 <우씨집안내력>과 <증조할머니 열행담>을 조사 채록하였다. 또 정산면 경로당을 들러 임도준, 강태석, 박봉현, 백병기씨로부터 설화 <호랑이 토끼 이야기>, <장승 이야기>, <퇴계, 올곡 호의 유래>, 민요 <타작 노래>, <흘애비 노래> 등을 조사 채록하였다. 그리고 오후에는 면암 최익현의 사당 모덕사를 탐방하고, 저녁에는 홍양유씨 댁을 방문하여 홍양유, 이계월, 김순지씨 등으로부터 설화 <친구 이야기> 등과 민요 <베틀가>, <시집살이 노래> 등과 동요 등을 채록하였다. 4월 28일 오전에는 이계월씨 댁을 방문하여 이정순, 양용례씨 등으로부터 민요 <베틀 노래>, <엿장수 노래>, <홍타령> 등과 설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등을 채록하였다.

### 3. 전체 평가회 및 해단식

조별 활동을 마치고 4월 28일 오후에는 모두 칠갑산 집결지에 모였는데, 마침 칠갑산 중턱에서 내림굿판이 벌어져 일부는 늦도록 이를 조사 채록하고, 나머지는 서대석 선생님, 김진세 선생님, 이상택 선생님, 권두환 선생님 등을 모시고 구비문학반 답사에 대한 평가회를 가졌다. 다음 날 4월 29일 오전에는 아침 식사 후 칠갑산 산책을 하고 기념 촬영을 한 뒤 오전 10시 청양을 떠나 서울로 돌아왔다. 4월 30일 오후 3시에 전체 평가회 및 해단식을 가짐으로써 학술답사의 모든 일정을 마감하였다.

이번 구비문학반 답사를 통하여 우리는 자료 조사의 방법과 요령을 체득할 수 있었으며, 적지 않은 문헌과 설화, 민요 등을 채록할 수 있었다. 특히 80여 편의 민요, 설화 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정신문화연구원)의 결손 부분인 청양군 일대의 구비문학 자료를 보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자료의 조사 채록 못지 않게 이번 답사를 통하여 우리 구비문학반은 선생님과 대학원생, 학부생 사이에 더욱 긴밀하고 돈독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우리 농촌의 실상과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다.

아무쪼록 바쁜 일정과 적은 활동 비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답사

활동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 대학원생, 학부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지면을 빌어 바쁜 가운데서도 귀한 자료를 제보·구연해 주신 제보자구연자 및 주민 여러분과 청양군청, 청양문화원, 노인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4. 조사·채록한 자료

지면 관계상 조사·채록한 자료 가운데 일부를 발췌하여 싣는다.

##### 가. 청양군 청양읍 일대(1조)

###### <창부타령>

[구연자] 김영애(여, 55세)

[구연장소] 청양읍

[구연일시] 1995. 4. 26.

[조사자] 서대석, 박종성, 김현식,  
김정곤, 신현재

아~어~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한 송이 떨어지는 꽃이 낙화가 된다구  
서러들마라  
한 번 피었다 시들 줄을 나도 번연히 알  
면서도

구지 손으로 꺾어다가 시들기전에 내버  
리면

버린 것 쓰라린 가슴 무심코도 짓밟고  
가게

숙명이기 운명이라면 너무도 아파서 못

살겠네

얼씨그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  
는 못하리라

###### <벼타작 노래>

[구연자] ?(남, 80세)

[구연장소] 청양읍 교월리

[구연일시] 1995. 4. 26.

[조사자] 서대석, 박종성, 김현식,  
김정곤, 신현재

해야해 해야해

여~보게 둉무들 해야해

정신을 차려라 해~ 해~ 해~ 야 해  
허어언이 해야해

여보게 혁허구니 넘어가요

해야해 해야해

저 건너 갈미봉 해야해

질안개 논~다 해~ 해~ 해~ 야해  
허어언이 해야해

여보게 해~ 들어간다

해야해 해야해

저 건너 갈미봉 해야해

비들여 은~다 해~ 해~ 해~ 야해  
허어언이 해야해

###### <상여매는 소리>

인생 한 번 죽어지면 옳도 짹도 아니나네  
잘 모셔 잘 모셔 열 두 군사 잘 모셔  
산간 벽지로 간다더냐 저승길로 간다더

나 지옥으로 간다더라  
잘 모셔 잘 모셔 열 두 군사 잘 모셔

### <왕신이야기>

[구연자] 이상근(남, 80세)

[구연장소] 청양읍 읍내리

[구연일시] 1995. 4. 27.

[조사자] 서대석, 박종성, 김현식,  
김정곤, 신현재

아들이 독신인데 그 집에 왕신이 있다  
라. 혼인을 해야되는데 혼이 잘 안 되더래  
요. 한 여자가 거기로 시집을 간다 그러대  
유. 자기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은 다 살다그러는데 너는  
어째 그 왕신있는 집으로 시집을 갈라 그  
러니?"

하니

"왕신 지까지껏 내 편에만 똑똑하면 되  
지요."

그러더래유.

그래서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해서 시  
어머니 시아버지랑 인사드리고 잤더래요.  
폐백을 드리려 왕신단지로 가야 된다고 하  
니까 왕신단지에 안 간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그 날 저녁 부인의 꿈에 조왕신  
이 나와서

"네 이년 찬을 한 모금도 없고 네가 정  
고집부리면 네 시아버지를 잡아가겠다."  
하더래요. 그러니까 각시가

"우리 시아버지 명 길면 살고 명 짧으면  
죽어. 네 멋대로 해라."

그러니깐 덜컥 죽더래요, 자기 시아버지가.  
동네에서 장사를 치르고 난후에 삼일만  
에 또 꿈을 꾸더래요. 왕신이 나타나서  
"너 같이 징그런 년은 처음 봤다. 그래  
도 행복 안 할려나?"  
하더래요.

"네가 그러면 네 시어머니를 잡아가겠  
다." "우리 시어머니도 명 길면 살고 명 짧  
으면 죽어 네 멋대로 해라."

시어머니가 죽고 동네선 볼려고도 않더  
래요. 그래 간신히 장사를 치르고 난 뒤에  
삼일만에 또 꿈에  
"너 같이 징그런 년은 처음 봤다. 승낙  
안 할래?"

"난 못혀."  
"남편네를 잡아갈터, 어떡할테나?"  
"그래 다 잡아갔으니 (남편도) 명이 길  
면 살고 명이 짧으면 죽어"

남편이 덜컥 죽더래요. 그 집은 망한 집  
이니 동네선 들여다 볼려고도 않더래요.  
장사치고 혼자사는는데 첫날밤에 어린애를  
하나 배 가지고 낳았는데 그게 아들이더라.  
그런데 그 때 또 꿈이 뵈더래요.

"너 이년 행복 안 할려나?"  
"난 못혀"  
"네 이년 그럼 네 자식을 잡아가겠다."  
하더래요.

"내 자식 명 길면 살고 명 짧으면 죽어."  
그날 밤 자고 났더니 안 죽더래요, 그건.  
그날 밤 또 꿈에 뵈더래요.

"세상에 너 같이 지독한 년은 처음 구경  
한다, 조선팔도를 다 돌아다녀도. 네 자식

은 잡아가도 못하고 내 힘으로는 못 잡아간다. 네 자식은 크게 될 사람이여. 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안 죽었으면 네 집안에 큰 인물이 안 태어난다.”

커 가지고 흥참판이 그 분이래요.

### <강릉부사 된 이야기>

자기 작은 아버지는 서울서 대감집이더 래유. 시골서 자기 장조카가 작은 아버지 집에 벼슬 한 자리 할려고 오르락 내리락 해도 벼슬을 안 시켜 주더래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장조카가 패씸한 생각이 들어가거든. 작은 아버지가 벼슬 한 자리를 시켜 줄래면 시켜 줄텐데 영~ 안시켜줘.

자기 작은 아버지는 말을 좋아하더래유. 자기 작은 아버지가 타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믄 백마라 그라. 그놈을 훌쩍 흉쳐갖구서는 자기 집으로 자기 집으로 갖구 내려온거. 내려와선 새카만 오추마를 만들었구만 그려.

그놈을 타구 서울루 올라가니까 작은 아버지가 실심을 하구 있어.

“작은 아버지 왜 실심했소?”  
하니

“너 못들었니?”

“왜요?”

“나 좋아하는 말을 잃었다.”

“아, 작은 아버지 말 잃었단 소릴 들구 제가 말 한 마리 사 갖구 왔습니다.”

“그래?”

“작은 아버지 혹시 마음에 드나 타보시오.”  
아 타보니께 그전에 자기가 타던 말보

다 흠씬 좋거든. 작은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그놈 벼슬 한 자리 시켜 줘도 넉넉할텐데 못 시켜줘서 참 잘못했거든. 그래 자기 조카를 뭘 시켰냐하면 강릉부사를 시켰데라.

그래 강릉부사를 시키구 눈맞구 비맞구 며칠 가구 보니까 하얗게 바랜끼 자기네집 말이여. 분하기도 할꺼.

작은 아버지가 강릉부사 떨라구 글투다 어사를 시켜서 보내는거. 강릉부사가 자기 삼촌이 어사를 내려보낸다는 소릴 듣구 자기를 떼려 내려 보낸건 사실이여. 내려오는 질목에 주막이 하나두 업데라. 내려오다 저물어서 오도가도 못 할 만 곳에다 주막 하나를 지오 놓고선 거기 어여쁜 여자 기생 하나를 있게 마련했다는구만 그려. 어사가 암만 내려와 봐야 주막이 있어야지. 해는 지고 더는 못 가고 주막 하나가 있는 디 부인이 참 이뻐. 주인을 찾아서

“여기서 하루밤 유해 갈 수 없겠나?”

하니까, 아 유해가시라구. 그런디 그 여자가 하얀 소복을 했어. 그, 어떻게 접촉이 되갖구선 그날 밤에 자게 됐는디 나중에 아마 밤중쯤 됐던지 문간에서 누가 고함을 치더라. 이 여자가 케짝에 어사를 떨꺽 가두고선 나가서 문을 따쳤다는구만. 하는 소리가

“아 장사나가시더니 벌써 들어오시나?”구.

“장사나가다가 저물허니께(녹음 불가). 우리집엔 전부 켜 때문에 아무 것도 안된디야. 케를 갖다 불을 살르던지 강물에 갖다 띄던지 해여 된다구”.

밤새 짜그락 짜그락 싸우는데 채 속에  
서 달탉달탉 뛰고 있지.

“야 너는 네 물건이라 하고 나는 내 물  
건이라, 서투 이러니께 우리 강릉부사현테  
재판가자.”

그놈을 짊어지구서 강릉부사현테 재판  
을 갔데라.

강릉부사가 뭐라고 하니

“어째건 이건 둘의 물건이지 혼자의 물  
건이 아니다. 종로 네거리에 갖다 놓고 틈  
으로 켜라.”

종로 네거리에 갖다 놓고 드록드록 머  
리 말에 소리가 나니 소리 안지를 장사가  
어딨어.

“아 사람살려!”

소리를 벅벅 질르고 지랄났지.

그리 인제 따고 보니까 자시 사신이 들  
어 앉았을 것 아녀?

“아이구 사신이 웬 일이여.”

빼내서 웃 환별 잘 입혀 갖구선 며칠 잘  
놀려선 올려 보냈드라.

어사가 서울 올라갔는데 작은 아버지가  
“너 벌써 올라오니? 어디 강릉부사는  
였니?”

“떼기는요. 내가 죽을 걸 살았습니다.”

“또 속았다.”

하구서 자기가 어사로 내려온다는거.

시골서 강릉부사가 본니까 자기 작은  
아버지가 어사로 내려온다 하거든. 또 ‘웩  
여야겠다.’

강릉부사가 생각허니까, 강릉부사가 자  
기 작은 아버지를 또 속이는데 어떻게 속

이냐하믄 자기 작은 아버지가 신선이 되기  
를 원하드라. 여기 칠갑산 같은 산봉오리  
에다 마당을 만들어 놓구선 거기다가 노인  
네 사람에게 바둑을 두게 마련하고 양쪽에  
서 젊은 청년이 피리 젓대를 불게 마련했  
다는구만 그려. 피리 젓대소리가 참 처랑  
스럽게 나거든 그 어사 들으니까. 강릉부  
사가를 떨랴구 자기 작은 아버지가 내려오  
는 판이여. 피리 젓대소리가 나는데 참 기  
가 막히게 좋아. 밑에서는 거억소루다 논  
발은 길게 하는구려.

“여보쇼!”

하나께, 논가는 사람이

“왜 그러쇼?”

하는구려.

“저기 저게 무슨 소리요?”

“아무 소리 만들립니다.”

“그 산이름이 뭐요?”

“신선봉이라고 하지요.”

쫓아 올라 갔드라. 올라가보니까 노인  
네 사람이 바둑을 두구 앉았는데 네겨다보  
니까 한 놈도 쳐다보는 놈이 없어. 피리 젓  
대는 사람들이 양쪽에서 볼구 그려는데,

“서울 사람 내려왔구먼.”

또하나 이렇게 쳐다 보더니

“아무개가 신선노는데 왔구만그려, 아들이야”

부르니까

“예!”

“네 이 양반 약주 좀 대접해라 그려.”

술이 왜 그렇게 달고 좋은지 맛있는지  
주는 대로 덜꺽덜꺽 먹었드라. 누러누어서  
씩씩자는데 썩 걷어 치워버리고서는 밑에

와서는 거먹소로 논발가는 데서 노랑소로  
발을 같게 했다는구려. 바꿔쳐 버렸어 벌  
써.

이 노인네가 얼마나 잣는지 자다 잠을  
깨보니까 해가 너울너울허거든. 그 아래로  
내려와 보니까 거먹소로 는 같던 게 노랑  
소니까

“아까는 거먹소로 같더니 어째 노랑소  
로 같니까?”

하니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거먹소로 했다는 얘기는 들었  
지요”

“그럼 강통부사는 잘 있다우?”

“강통부사 그전 얘기만 들었지 지금은  
모릅니다.”

‘아 신선 하루가 인간 백년이라더니 벌  
써 백년이 됐나.’구.

서울루 올려오니까 자기 아이들이 나오  
더니

“벌써 오시오?”

“나 간 지 얼마됐니?”

“엊그제”

“아뿔사 또 속았구나. 아 그래 강통부사  
되기 확실하다. 납두자.”

하구선 생전 강통부사 해 먹게 뒀드래요 월.

### <남양면 안골매기에 얹힌 전설>

[구연자] 김석권(남, ?세)

[구연장소] 청양읍

[구연일시] 1995. 4. 27.

[조사자] 서대석, 박종성, 김현식,  
김정곤, 신현재

안골매기에 유씨가 누대 살았어요. 그런  
데 그 유씨 가문에 효자가 있어요. 효자.

그 효자가 자기 아버지가 참 고칠수 없  
는 병이 걸렸단말이요. 그래서 여기저기  
용타는 한의사를 찾아서 약을 구해 다 아  
버지를 참 악시세를 했시도 효득을 못봤단  
말이유.

하루는 효성이 지극하단 소릴 들고 어  
떤 종이 지나가다서 효자를 만났단 말이유.

“당신 아버지는 그 백마의 뼈를 태우든  
지 갈든지 그것을 먹어야 낫는다.”

하니

“그 백마의 뼈를 어떻게 구합니까?”

허니까

“그것은 네 자유지 내가 알 수 있느냐?”  
고 하니.

그래서 백마를 어디가 구하는가 수소문  
을 해 보니까 흥주목이 타고 다니는 말이  
백마란 말이유. 그렇다면 그 백마를 가서  
사오던지 어떻게든지 가져와야 할텐디 감  
불생심이지, 옛날은 참 목사온 참 뭐 촌사  
람하고는 하늘하고 땅이지 어떻기 하것이  
요. 그러나 한 번 가봐야겠다구 나이 어린  
열 세 살 먹은 유도령이 거길 갔어요.

가서 문에 들어갈라 그러니께 못들어가  
게 한단말이여. “내 사정이 이러하니 대감  
님 좀 뵈야것다.”고 하도 떠들어 쌌고 아단  
법석이니, 대감이 목사께서 나와서 뒷뜰에  
떠드는겐가 나와 봤던 모양이여. 나와보니  
까 어떤 애하고 문지기하구 떠들고 있단  
말이여. 문지기 보러

“너 이리 오너라.”

“너 왜 이렇게 떠들고 있니?”

그러니까

“어린 너석이 목사님을 뵙겠다구 이렇게 자꾸 찾아와서 성가시럽게 당장 가라고 호령해도 듣지 않으니 어쩌나?”고,

“들어오라고 해라. 무슨 원이 있는 게 라.”고. 그러니까 들어갔단 말이여.

“뭣땜에 목사를 불려구 했느냐? 너가.”

“다름이 아니옵고 황송하기 짹이 없으나 저희 아버님께서 벌써 십이 년간 병식에 누워 계신디. 흰말 뼈를 저 같아서 가루를 잡수셔야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흰말을 구할라고 허니 없어요. 얘기를 들어 보니 목사님이 가지구 계시다길래 말 좀 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어 목사가 깜짝 놀란단말이여. 귀에 하는 말인디, “아 이놈 당장가라!”고 “당장가라!”고 호령을 쳤지요. 할 수 없어 집에 왔지유.

집에 와는디 그 날 저녁에 백마가 거기로 와서 죽었어. 매곡리 남양면 매곡리 안골메기네 와서 죽었단 말이여.

그래서 인저 그 말 참 뼈를 같아서 아버지 악시세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병이 씻는 듯이 나았어유.

그래서는 말을 찾다 말이 도망갔순께 흥주목에서는 야단이 났단 말이여. 야단법석이지. 얘기를 들어보니께 남양면 그전에는 여기까지 흥주목이었어요. 여까지. 여어서 말이 죽었다 그러네유. 그럼 그 놈이 끌고 갔겠어요 어쨌겄어요. 그런디 거기 가서 죽었어.

그래서 참 나라에 보냈어요, 상고했어요. 그래 나라에서 효자라는 효자문을 내리고 영문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효자문이 있어요. 그런디 역사는 모릅니다. 역사는 몰라요.

#### 나. 운곡면·대치면 일대(2조)

##### <동대문 최판관의 유래>

[구연자] 최병헌(남, 62세)

[구연장소] 운곡면 위라리 최병헌씨 댁

[구연일시] 1995. 4. 26(수).

[조사자] 최원오, 조희경, 김형금, 임지오, 정진희.

4월 26일 저녁에 제보자의 집에서 설화와 민요를 채록하였다. 학력은 국민학교 4학년까지 다니다 중퇴하였다고 했다. 구기자협동조합 조합장을 역임한 바 있어, 마을에서는 유지에 속하는 편이었다. 역술에 관심이 많아 역술서를 자주 들여다 본다고 했다. 발음이 꽤 정확한 편이었으며, 기억 상태도 좋았으나 밤이 늦은 탓에 자세히 구연하지 않은 것이 많았다.

두 편의 설화를 구연하였으나 근래에 들어 형성된 <동대문 최판관의 유래>만을 소개한다.

서울 동대문 시장께 가며는 최판관이라

고 써붙인 디 있을 거야. 아마, 삼층빌딩.  
그 사람이 최영환이라고 우리 일가 사람인  
디, 최영환이라고 일가 사람인디.

그 사람이 에 여기 나 수상을 배워가지  
구 박사소리 들을 땐데.

걔가 (그 책. 옛날 책 갖고 와 봐, 여기.  
갖고 와 봐.) 수상책을 갖고 왔어. 일본놈  
인지용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더  
라고. 난 서양책을 배우는데. 이건 동양철  
학인디 내가 이렇게 넘겨보면서 이건 이러  
이려한다,

“이게 잘못됐다, 잘못됐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허니께, 이 사람이  
“아니, 아저씨, 언제 이렇게 배웠시유.”  
그러더라고.

“뭘 배워, 나 책 쪼금 봤어.”

내 한참 설명허니께 아이고,  
“아저씨 박산디 왜 여기 앉았느냐구 시  
골에 앉았느냐구.”

그러더라고.

“자넨 그 몰르는가?”

“아이고, 아저씨, 나 좀 일러줘요.”  
가끔 우리집에 오더라고.

그래서 내 가끔 일러주고 그랬는디, 개  
가 인제 그, 글방엘 조금 다녔어.

옛날에, 우리 최가에 요 강당이 있어 가  
지고 한문을 많이 가르쳤는데. 나는 자습  
을 해서 배웠고 개는 글방에 댕기면서 배  
우고.

그런디 이놈이 일을 하기 싫어갖고 돌  
아댕기다 보니까 가산도 다 팔리고 할 일  
이 없으니까. 저의 끝은 할머니하고 늙은

어머니하고 모시고 서울 이사를 갔다고.

당장 먹고 살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서  
울역에 가서 이제 손금보는 걸 펴놓고. 어  
떡해, 뭘 하든 먹고 살아야 되는디 어떡해.  
거기서 그거를 허다가 살살 허는디 제법  
잘 되여, 먹고 살 만치 그게 되더라.

그게 그러는디 한번은 거기서 이렇게  
보는디 유명히 손님이 없고 그냥 그 날은  
밥거리를 못해 갖고 들어갔더래.

그런데 그 지개꾼들이 그 옛날에는 뭐  
여, 그 서울 지개꾼들 많았다고. 서울역, 영  
천 아파트 앞에 지개꾼들이 와서 수상을  
좀 봐달라 그러드려. 거 보아하니 지개꾼  
들이 와서 봐 달라 그러니까 될 거 아녀.  
돈은 못 벌어 신경질 나는디다가. 그런께  
이 사람이 불속 핸다는 말이,

“지개꾼이 뭘 블랴구 당신 널 죽어. 널  
열 두 시 죽어! 죽을 거나 대비해.”

쩝다 그랬다. 무의식에 불호령이 나니께  
이 사람이 지게 눈 크게 뜨고,

“뭣이 어여, 내가 널 죽어.”

아, 뱉어는 말이 있으니 쏟아담을 수가  
있나. 엎지러진 물이지.

“뭐, 죽는다고. 거 죽지 않게 대비허라고.”

“아, 죽지 않게 어떻게 대비허느냐?”  
고. 이 자식은 어떻게 대비허나 묻는 것도  
아니고,

“당신 널 내가 안 죽으면 어떡할 거나?”

“안 죽으면 좋지, 뭘 어떡혀. 그러나 저  
러나 죽어.”

그렇게 모면허구서는. 에이, 오늘 재수  
없어 안 되겠다. 보따리 싸 가지고 들어왔

다는거 집으로. 돈도 하나도 못 벌고.

들어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그 이튿날 서울역에 나가질 못하겠더라는거, 거짓말을 해 놨으니. 예언을 한다는게 느닷없이 해 놨으니. 그 사람이 만일 안 죽었다면 지게꾼들한테 작대기 맞아 죽을 판이란 말이여.

근데 그 전날 하나도 못 벌었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놈이 나가긴 나가서 벌어 야것는디 걱정된단 말여. 오전엔 못 나가겠단 말이지, 개들 무서워서. 이 사람들한 티 아무래도 맞아죽게 생겼드라.

그래서 이제 오후 한 시쯤 열두 시 지난 데서 살살 가서 숨어서 보니까. 그 전날 자게꾼들이 와서 두렷두렷 찾더라는거. 왔다갔다 지게도 안 지고.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한편 궁금허기도 할 거 아녀. 자기가 예언은 해놨었다. 그래서 이제 살금살금 나가서 보니까 한 사람 눈이 띄었드라. 나가다가 아, 이리 오라고 손으로 부르더라. 보니까 뭐 해칠 표정은 아니더라는구만그려. 뭐 지게도 안 졌으니 작대기도 안 들었고. 그래서,

“왜 그러냐”

고 허니까.

“선생님 하여간 박사라고. 그 사람 죽었다 이거여, 열 두 시에. 열 두 시에 죽었다고 선생님 박사라고.”

막 난리가 났더라.

아, 이 사람들이 지게꾼들이 그 날서부터 선전을 해 주기 시작해 가지고 서울역에 앉았는디, ‘저 앙반 박사라고. 무슨 예언

을 했는데 진짜 그 사람이 죽었다.’고.

지게꾼들이 대니면서 막 선전하고 허니께 다 끌이듣지. 어리숙하게 보니까 사기꾼 같지도 않고 허니까. 그래갖고 돈을 이 사람이 벌기 시작해갖고 돈을 갈퀴로 긁었는겨, 얘기할 거 없이.

그렇게 해 갖구 동대문에다가 이제 빌딩 짓구서 빌딩 짓구서 사는디. 그 오막살이 집은 팽개치구서 거기서 빌딩 짓구서. 아 지금은 여비서 딱 두고 접수해서 접수해서 몇 번 딱 불러들이면 하구. 한 번 보는디 몇 만원씩 지금도 계속 하는디. 그 사람들 보통 장차관들만 상대허지. 국회의원 하구.

### <명당 팔려 다닌 성거사>

[구연자] 전종돈(남, 83세)

[구연장소] 대치면 주정리 전종종씨 댁

[구연일시] 1995. 4. 27(목).

[조사자] 최원오, 조희경, 김형금,  
임지오, 정진희.

주정리에 사는 복진석씨의 소개로 제보자의 집을 찾아가 설화와 단가를 채록할 수 있었다. 어려서는 한쪽 눈이 어느 정도 보였으나 이십대에 시력이 떨어져 그 때부터 아무 것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학교는 다니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것 저것 들은 것은 많다고 자랑을 했다. 발음 상태는 좋지 않았으나, 쉬지 않고 구연하는 열의를 보였다.

네 편의 설화를 구연하였으나 그 중 서사적 전개가 분명한 <성거사이 야기>만을 소개한다.

조사자 : 그럼 그 복장수 하신 분이요, 돌아다니시면서요. 그게 뭐 명당터 잡아주고 그러신 이야기 없었다고 그래요?

제보자 : 그 분이, 이전에 명당 잡아주고서 팔라 댕긴 분이 하나있어. 성거사라구. 이전에 그 얘기는 길어.

조사자 : 해 주십시오.

제보자 : 그 얘기해라구? 그냥.

구한국시대 성거사란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는 명당은 술한데 쓰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만장 때처럼 거기다가, 예를 들어 말하면, 저 여기 비봉포란 여기 장군대장 장곡 장군대장 같은디. 그 아저 이 이저 광대포랑 같은 것, 그런 것을 전부 써갔구 서는 창대기마다 이낭 매구 성걸이 오챙이에서 짚어지구 그지처럼 하구서는 장에 댕기면서 사라고 소리지르는거. 명당 사라구. 그러니 누가 사야지.

그 여기 저 예산 장에서 그랬던 가벼. 박씨라구 주냅 박씨 시조가 그 묘이를 썼다는거. 근디 그 부인이 자기 냄편을 그저 그 채빈했다가는 업토를 못했는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성거사거든. 명당 어디는 천냥, 오백냥, 삼백냥, 어쩌구 그러는디.

“오백냥짜리면 하나 좀 사서 쓸테니까 일해 달라구.”

“그러라구.”

가서 일러주구서 묘이를 쓰구서 가서 오백냥을 해놔야 일러줘. 해갖구서는 해놓구서는 일러두니까. 돈 속냥만 갖구가구서는 소용없어. 도로 그러니까 쓰게 해주느라구 그러지. 자기 저 노자 쪼금 보태서 할라구는 그러구. 돈 석냥만 갖구서.

그에 그에 한곳을 뚝 가보니까, 초상 참기와집이 있구. 큰 집인데 거가서 예이 이집에 가서 좀 팔아야겠다구.

이간장방에 잔뜩 들어 앉아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구, 워, 어디 가면은 묘자리가 좋구 어쩌다 그러거든. 거기 들어가 앉아서는, 거, 명당 거시기는 배깥에 재놓구서는 가보니까.

명당이 하나 있어. 원치 명당인게 거기다가 묘이를 쓰며는 팔월 보름날이며는 장가 안들 장가들구. 팔월 열이래날이면 천석 거부가 될 자리여. 당년에 그러니까 명당이지. 거기 그 저 상제 보구서,

“저기들 쫓아가질랑 말구. 나 일러주는데 요기다 요통게 그려주구서. 요기다 쭉쓰시우. 그러면은 올 당년이 천석거부가 될끼라구.”

그래, 주춤주춤하니 저기서 가는 직원들이, “그 미친 사람, 미친 사람같애유.”

그러니까 그 미친 사람 말 듣고서 오지 말구 얼른 오라고 해니까. 굴투 가거든.

아, 그러니 부회가 확 나서 누구를 일러줄 사람이 있어야지. 애, 저 그저 장가 못 듣 충각 녀석 하나 있으며는 일러주면은 팔월 보름날이면 장가들구. 팔월 열이래

날이면 천석거부가 될 자린다.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산모통이 돌  
아가니께는 애들 소꼽장난 하구.

“애들, 여거 상제 없니?”

“상제가 어딨슈?”

“없수유.”

한 놈이 있다가

“왜 없수유? 접때 저 어머이 죽어서 갓  
다 저기다 체변해 두었는데.”

“그 집 어딩게 있나?”

“요기요. 돌아가면온….”

(tape 바뀜)

가보니께는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거기  
앉았는거. 이 사람이 성거사란 양반이 그  
만장 다독그러구서 그 총각 오길 기다려.

저녁 때 되니까 숯거리 질며지구서 시  
커먼 놈이 오거든.

“아이구, 워서 오신 양반이 이렇게 누추  
한 곳에 앉아있나. 아이구, 참 수고한다구.”

그러구서는,

“아이구, 오셨으니 어쩔하는냐구. 여서  
주무시고 가셔야지.”

그러니 인자 지가 밥해 역구 다니는디.  
지가 밥해서 둘이 보리방아 짖어서 밥을  
해먹구서는 상제되니까. 그 상제된니까.

“어머니 그리구는 거시기 쓰구서는 엄  
도를 못했다니 내 일러줄께 쓰라구.”

“아구, 고마우시다구.”

그기까지 일러주구서는, 그 이튿날은 저  
녁, 이 얘기를 해. 워디 가서 흥대칠성 뭐  
저 거시기 개려먹을 것 뭐 있어 허구. 사람  
두서넛, 돈 열냥. 그 때 열냥이라면 아마

돈 십만원이나 그렇게 될끼야. 돈 열냥이  
라면은 헐 수 있나니께.

“예, 이러는 우리 일가집이 부진디 거기  
가면은 돈 열냥은 구출할 수 있슈.”

해갖구서는 거기다가 묘이자리를 이렇  
게 잡아서 그 권도령 어머니 묘이를 막 써  
줬어. 써주면서는,

“너가 여기서 오늘 썼으니까 팔월 보름  
날이면 니가 장가든다. 어 열이레날이면  
벼 천석은 혀.”

그러니까, 그 미친 사람이야기지. 누가  
똑 얼어 먹는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해  
다니는 이가 그러니까. 하여간 고맙기는  
했어도 팔월 보름날 까맣게 지나니 열나흘  
날까지도 뭐, 아무 소식 없잖아.

팔월 보름날이 딱 됐는디. 이건 뭐 숯구  
라 다니는 팔월 보름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참 저 어머니 상황 밥 떠다놓고서는 산에  
있다봐 간기여. 아, 가서는 숯낳구 그냥 하  
구서 불낳구서는 오니까. 참 달덩이같은  
각시하구 노숙한 노인네하구 와서 들팡하  
구 앉았는거.

아이구, 그러니까 말도 못혀. 이 사람은  
거기 어뜻게 말도 못하게 생겼어. 그 분에.

“아이구, 어서 오신 양반의 질을 잘못들  
었나.”

“이런 일이 아니여. 우리가 시방 살디  
는 아무디서 사는디 지나가다가 어데 잘데  
는 없고 여기서 하루쯤 자고 갈라고 들어  
왔다구.”

“아이고, 이런 데 어떻게 주무시냐구. 요  
기서 요렇게 돌아가면은 요 고개 넘어가면

은 거기에 동네 있는디 거기에 부자집도 있구 허다구. 지가 안내해 줄께 글루 가라구.”

“아니라구. 여기서.”

“아이구, 그러면 어찌하나구. 저녁이라도 해 잡숴야 한다구.”

보리를 펴다가는 독에다 넣구 지가 징야 하니께. 그 늙은이 씨더니,

“아녀, 우리가 찢어서 해먹게. 남자가 무슨 절구질을 한다구. 우리가 찢어서 한다구.”

돌이 달라 들여서 찢어서는 아. 그런디 불안하지. 자기하구는 해 그 저녁을 해서는 셋다리 점상을 해갖구 밥을 와서 먹으라는거. 그런디 거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무서워 감히 어쩌해. 더군다나 따로도

아니구. 셋다리 점상을 하나가 있으니께. 거기다가 쟁을 놓고서 먹게 그냥 그 부인이 자기 달을 그 쟁각을 사워 삼을라구 맘먹은거 애초부텀. 거 먹구서는, 잘게 워고 양이 앞의 취걸음처럼 앉쳐서 쪼그리고 와서는 밥을 먹구서는.

“아이구, 여기서 나는 요 넘어 우리 일가집에 가면는 거기는 거기가서 자구 올테니.”

“아구, 주인네 없는 방에서 어떻게 자느냐구. 꿈싹말고 있으라구.”

아, 꼭 불잡는거.

그러면서 그 새닭은 상갖구 나가서 설걷이해서 치구 딱 들어와서는. 그러니 거기 앉았을 수도 없고 불잡고 앉았으니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 도형이 어디를 가며는 우리두 갈꺼. 그러니 여기서 같이 자자구.”

그러니까. 쟁각하구 자기 달하구 요로

아랫목에다가 옷목에서 잘라 그러니께. 아랫목에다가 자기 달하구 같이 자라구 그러는거. 자기는 옷목에서 자구. 그서 먼저 할 수 없이 시키는대로 참 자구서는 딱 일어났는디. 밥을 해서 먹구서는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이게 내 딸이여. 우리 살기는 서울 아무개서 사는데….”

이게 그러니께. 한 번 갔다가 아이 상부하구서는 집에 온 딸이니께. 그냥 청춘에 이전에는 열댓 살이면 예닐곱 살만 되면온 시집보냈거든. 사주 택일만 해두 그 집에 가서 신령자리가 죽으면온 가서 생전 그집에 가서 살구 그랬데.

“아, 그러니께. 나이 내 사위삼고 이 내 딸이니께 아주 맥길테니께 살으라구.”

이 쟁각이 쳐다보니까 자기하구 살 수가 없어. 자기 숯구어 먹는 놈하구 어떻게 살아. 아무깐 어디 인척이 없는 놈하구, 그런 여자가. 그리구서는 나는 갈테니께. 맥기구 가는거. 맥기구 잘 살으라구.

그러니 참 큰일났어. 그래, 장가만 그넘어 자기 일가집 천석거부가 너 장가 들으면 요 앞에 있는 논 닷마지기랑은 니가지어먹으라구 줄테니께. 장가를 들거들랑은 준다구. 그 생각이 언뜻 들어가 논 닷마지기를 엎을라구. 아침먹구 거구투 간겨. 저 장모자린 가구, 저 아내자린 집에 있지. 가니까 이제 맥일까 데고 참 잘해서 쥐서 먹구서 가는디 술안하거든.

“아구, 왜 그러냐구”

그러니까. 이불보따리에 틀구 집을 싸구

그려.

“아, 그래. 왜, 거시기하느냐구.”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로다가 이사를 가야갔어.”

그러니까. 숯갈 조금 하낫, 세간 다 넓다 놓구 이불보따리만 갖구 서울로 간다는 거. 있는 것 다 팔아갔구. 허 논 닷 마지기 얻으러 간 놈이 참 혹 떠려 갔다가 불이듯 끼 와서는 논 달라는 소리도 한마디 못하구서는 은 게여.

와서는 그도 그렀듯끼 와서. 장가는 들었서두 논 닷 마지기 준다구서는 입두 못하구서는 팔구 간다니 살 둔은 없구 어떡하겠는거. 집에 와서 꿩꿍 거려.

“아이, 일어나 저녁 먹으라구. 저녁이다구.”

“아구 저녁이구 뭐구, 거 낮에 많이 먹었더니 배풀르다구 그려.”

꿍꿍 거려.

“밥이 아니, 워 워디 갔다 뭐해서 무슨 일을 보았었나, 워째 꿩꿍 앓는 소릴 하느냐.”

그러니까. 얘기를 안혀.

“아니, 우리가 우리 어머니가 내외간 맷어줬으니 한 진통타려 내외간 됐으니까. 그러니까 죽어두 같이 죽구 살아두 같이 살 사람이니까. 아주 토탈 얘기 좀 해보라구. 왜 꾸꿍하느냐구.”

그 얘기를 죽 한겨. 장가들며는 이 앞에 있는 논 닷 마지기를 나를 준다고 하였는디, 전부 팔아갖구서는 세간살이 그저 울저 몸통이만 갖구 빠져 나간대. 이불보따리만 갖구 그러니까 어떡해. 논도 달라구 못하구 왔다 그러거든.

“그깟 그깟꺼서 니 갖구서 대장부가 밥도 안 먹구서 니 꿩꿍대는냐구. 일어나 밥먹으라구.”

아, 그 끄길 할 수 없이 밥을 먹구서 잤어. 인자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 집에 가서 장끼 말아올 수 있느냐.”  
장끼라는 게, 애 시방 문석받애야. 아니께 논이 몇 마지 몇 평 있어. 논이 몇 마지 기 몇 평, 숯갈은 몇 개, 참 사발은 몇 개, 참 농 같은 건 무어 얼마 전부다가 거기다가 쓰는거.

“싸가다가 통계가 얼마나 장끼를 말아갖구 올 수 있느냐?”

“그거야, 해달라고 해 해줄테지.”

“그러니까 해 갖구 오라.”

게 시키는대로 해야지. 인자 뭐 여자가 시키는 대로 가서는 해달라구 그러니까. 그 저 일가집에서 뭔 저게 어따 흥정붙어서 혈러구. 참 하여간 해달라니께 죄다 해줬어. 참, 순달라 그래 그러구선. 수인 인자 수인이라는게 손구락 시방두 지장 지장 찍듯이 찍어서는 그놈을 갖구 집으로 왔어. 와서는 마누라 주니까 여자가 보구서는,

“맞는다 됐다.”

그러구는 그 보따리를 딱 내려놔. 내려놓더니 그게 금보따리여. 어떠니 저울활래 그놈에다가는 그 돈 많자. 시방으로는 십억이라든지 백억이라든지 돈 거다 해가주 그 돈 많지. 금근 따져서는 틀구 달어서, 쟁구 달어서, 쟁구 해서는. 거 십원 한장 일원 한장 안 깎구서 거기다 쓴대루 고 돈을 금으로다가 다 해서 보따리를 자기 남

편 주구서 갖다주구서, 거기서 영주증 문서 거 전부 영수증 말아가지구 오라구. 아 어제디 장끼 받아서 아 돈받으라는겨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깜짝 놀랄 것 아니여. 알 것도 없는 저 놈이 흉정 불이지 생각도 안 했는디 돈갖구 와서 돈받으라니끼 얼마나 참 놀랄꺼. 그 그 보따리를 놓구서는 저 울을 갖구 와서 저울로다가 금을 달아서 넘겨서 보니까. 자기가 거기서 쓴대루 일원 한장 뭐 십전 한돈 안 깎구서 고대루 가져온거. 그저 영수증해서 문서 전부와 다 해서 인지 딱 받았지. 그서 그 사람은 천석꾼은 서울로 이사가구. 그 사람을 그 집으로 들어가서 열이레 날 천석거부가 됐다는거.

거, 거기서 맞았다는 그 얘기가. 그 성 거사라는 양반의 이야기 쓴 사람은 주님 박씨 하나밖에 없었다. 시방두 그냥 있었는데.

#### 다. 화성면·남양면 일대(3조)

##### <내복에 산다>

[구연자] 이기남(여, 72세)

[구연장소] 화성면 수정리 구연자의 자택

[구연일시] 1995. 4. 26(수).

[조사자] 권두환, 정재민, 송팔성,  
이대효, 한길연, 이영석,  
곽지윤.

구연자의 신당에서 그녀의 강신

경위, 무업을 하게 된 사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설화를 구연하게 되었다. 그녀가 보유하고 있는 무가는 <채수축원>과 <천도축원>이 있다고 하여 서사무가의 내용을 들려주며 구연을 유도했으나 그런 무가는 모른다고 했다. 아마 그녀가 내림굿을 하지 않은 강신무로서 독학에 의한 학습으로 다른 무가를 배우지 못한 것 같다. 조사자가 시무룩해하자 갑자기 재미있는 옛날얘기나 하자면서 이 설화를 구연하기 시작했다. 이 설화는 어려서 부모님께 들었다고 한다.

근데, [잠깐만 녹음 좀 하구요.] 부자루 잘살드래. 아주 그럴 것이 읊이 잘사는데 큰딸을 불러 갖구 사랑에 지워서(겨워서 : 체록자 주) 하는 말이

"아무개야 너는 누 복에 잘 먹구 잘사니?"허니,

"아부지 어무니 복으로 잘 먹구 잘 산다."구.

[그렇죠] 그런게 그럼 저 가 앉었으라고. 둘째 딸을 불렀드래. 둘째 딸을 "아무개야."

불러서,

"네에"

허니께, 오라구 해 가지군,

"너는 누 복으로 잘 먹구 잘 사느냐?"

허니께르,

"아부지 어무니 복으로 잘 입구 잘 먹구

잘 산다.”구.

“그러나.”구.

인제 시째 딸 이름이 연양이드라,  
“연양아~너는 누 복으로 잘 먹구 잘 사  
나?”허니께,

“내 복으로 이렇게 식구가 잘 먹구 잘  
살지 누구 복으로 잘 사느냐?”구.

아 그런게 즈 아부지가 입살맞거던. 가  
만히 생각현게 다들 제 어무이 아부지 복  
으로 먹구 산다는데, 그 제 복으로 먹구 산  
다 허니께, 그 입살맞어. 그러니께니 부리는  
하인덜, 일꾼덜, 일 시키는 일꾼덜, 남자  
들은 그 딸을 데려다가 다 상전(산속)을 잘  
못 말한 것 같음:채록자 주) 아즈 지금이루  
말하면 오수산이나 그런 산에다가 내비리  
라구 했어.[그렇죠, 예.] 그래 갖다 그 시째  
딸을, [입다구요?] 입다구 내비리라구, 그  
갖다 내비리구 왔어.

와서 저녁이 왔는데, 인자 이 아가씨가  
산이가 인제 앉았는디, 뭐 무섭기는 허구  
사방에는 훌러 보니까 어서 불이 반짝 반  
짝 봄더라.[예.] 그래서 인자 거기를 찾아  
갔드라. 반짝 반짝 봄는데 가서, 저게 사람  
이겠지 허구 찾어 가니까, 옛날에 술구덱이  
술총각이 [술 굽는 사람?] 술 구더라.

술 구는데 이 총각이 깜짝 놀래 쳐다 보  
는데, 웬 아가씨가 하나, 처녀가 왔거던. 그  
래 인자 밤인데, 불 때니까 밤인데 그래서  
인자 가만히 술구덱이를 보니까 이상하드  
라. 그 새악시가 인자 집이 가서 자라구.

“집이는 인자 이 산중에 와서 워치 허겠  
느냐?”구.

“나 자는 움막에 가 자라.”구.

이 움막을, 막을 지었드라. 집이 아니구  
서 이냥 움막을. 그래 움막을 가 자라구 해  
서 인자 그 움막으로 가서 자구서는 식전  
에 일어서서 보니까, 동이가 쌀이 조금 있  
드라. 그놈을 긁어서, 광에 있는 거를 그냥  
끊어서, 밥을 해 가주구 술구덱을 갔드라.  
그 총각을 줄라구.

가니께니 술구덱이 불 때는 이렇게[제보  
자가 손으로 술가마 모양을 그려 보이면서]  
센(서 있는:채록자 주) 돌막이 이렇게[또 한  
번 손으로 돌 모양을 그려 보이면서] 헌 이  
마득이 다 금독이드레. 그 아가씨가 복이  
많아서 제 복으로 먹구 산다구, 다 금독이  
드라. 그래 인자 총각더러,

“불 때지 말구 저 술구덱이 이냥 서 있  
는 돌막허구 이마독현 돌막허구 빼 가주구  
오라.”구.

불 땔 까닭 없다구. 아 그러니께 이 총  
각이 큰일 났어. 웬 지짐애가 하나 들어 오  
더니 술도 못 구어 먹게 허니께. 하하하.[제  
보자, 채록자 웃음] 아 그거 빼다 들여 놓  
으라 허드라. 그래서 인제 그 놈을 시번(세  
번:채록자 주) 져서 방에다 갔다 놨는데, 또  
인제 술구덱이가 또 있은께, 거기 불때러  
갔는데, 그리 밥을 해 가주구 저녁에 오더  
리나. 아, 거 가보니까 또 마땅 금독이드레  
유. 그게 그 시악시가 보기만 해도. 그래서  
그 구덱이도 불 때지 말고 또 져 오라구  
허드라, 져 오라구.

술두 못 구구서 그래 앉었응게. 인제 한  
사람이 있다. 그 서울 어디 가치운덴가, 무

순 장안인가 가서 이 돌막 하나를 놓구서  
평일 놔두구 앉었으믄, 다 해다갈 때 되야  
노인네 하나가 와서, '얼마 주랴' 허구 허  
걸랑은 '얼마 달라' 구 허두 말구서, 그게  
금독인게, 금독인게, 그래서 '생각해서 주  
시리' 구 그랬드라느먼, 가 보라구 그래 갔  
다 놓구 평일 앉었을게, 이 참 저녁 때 어  
떤 노인네가 나오더니,

"그 돌막을 얼마 주랴?" 구.

그러니까,

"아 얼마 달라구 하겄습니까? 생각해서  
주시요."

이랬다느먼.

그렇게 돈을 말발에다가, 말에다가 실어  
보내구, 그 금독 갔다 눈 거 다 그냥 팔아  
서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막 달리리 지와  
집(기와집:채록자 주)을 짓구, 막 행랑을 그  
눌루구 막 그러구 사는데, 대문을 양, 집  
짓는 총각더러, 집 짓는 지우(목수:채록자  
주)더러 대문을 열어두 '여냐양' 허구, '빼  
드득 여냐양' 허구, 닫어두 '빼드득 여냐  
양' 허구, 그럴게 허게 해 달라구[일동 웃  
음]. 허 그렇게 해서 대문이 참 '여냐양 여  
나양' 그랬드라먼.

그 집이는 그 딸 하나 내 끊구서 다 그  
지가 됐드래유. [어, 그 집온요.]친정이가,  
어무니는 죽구 아부지는 그지 되구, 성달  
은 말짱 시집갔는데 못 살게 되구, 복이 없  
어 갖구. 그래 그 시악시 복으로 며구 살다  
그 시악시 갖다 산에다 내비린대루 복으  
다 그리 가 가주구, 여기는 마 그리 부자  
돼서 달리리 지와집을 짓구 막, 부잔데 막

부리는 사람 두구.

인자 하루는 그 할아부지가 그 동네루  
동냥 왔드라. 그 딸네 집우루[아버지가], 동  
냥을 와 대문을 열으니까, 참 저런 아가  
씨, 찍끄언 심부름 허는 애가 쌀 한 낭 쥐  
서 내보내니까, 대문을 여니까, '빼드득'  
허더니 '여냐양' 이러구서, 자기 집은, 자  
기 딸은 죽었을턴디 대문이 됐느냐, 으째  
됐느나구 올면서 가드라, 가니께 안에 들  
어와서 그 애가 부인더러

"우리 대문소리 둘고 그지가 올구 가  
유."

그런께.

"그지가 할아부지데?"

그런께.

"네"

핥아배라구. 그지가 올구 가유 허니까  
니.

"그 저기 그지를 데리 오라." 구.

핥아버지 데리 오라구, 핥아부지를 모셔  
오라고 허니까, 막 거서 부털 비는거여.  
이런 거지 늙은이를 뒷 잘못했간 데려 오  
라구 허느나구. 마님이 그러니까 목간통에  
다 물을 한 통 데워 놓구서, 가서 그 일허  
는 사람덜 시켜서 목간시켜 갖구 오라구.  
그래 목간 삭 시켜 갖구 오니깐, 옷 한 벌  
을 잘 꾸며 봤다가 입히구선, 절을 짹 허거  
던, 절을 짹 허니까, 막 절두 안 밟구 돌아  
않을라구.

"이런 그지에게다 왜 절을 할리구 허느  
냐?" 구.

그래니깐,

“아버지 지가 연양이요.”

허구, 절을 허구선 [일동 웃음], 아부지 지가 연양이요 허구선, 절을 허구선 그냥 지아부지 소도(효도:채록자 주)허구 잘 살 었다. [일동웃음] 재밌지, 그 얘기. 그렇게 효자허구 잘 데리구 살았다. 그 아부지랑.

### <아버지 원수 같은 사냥꾼 아들>

제보자의 신당에서 <내복에 산다>를 채록한 후 계속해서 구연한 자료이다. 고유명사는 모두 불명확하지만 善射화소를 지니고 있어 주목된다. 어려서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라고 한다.

한 사람은 뭐 저 그냥 아들이 요만치 [제보자가 손으로 높이를 가리키면서] 컷는 디 [예] 그 영감이 대꾸 사냥을 간다고 해 싸트라. 사냥을 간다 해 싸서,

“그러믄 내가 물을 이고 올 테니까 물동 우다 총을 놓아 보라.”구.

“물동우가 땅- 허구 맞으믄 가는거구, 빗트러 가믄 못가는 거라.”구.

그냥 뜻가게 허드라나. 근게 물을 이구 오라구, 그래 물동이 이구 오니깐, 총을 놓으니깐 물동우가 꼭 맞았다는그려. 그래, 그 참 나서서 갔는디 [예] 산이 몇 고랑인가 허문 다섯 고랑이 산으루 갔드라. 그 거 갔는데 인저, 거기는 헛다는 저기도 못살 어 오는데 갔는데, 즈이 아부지가 가서 참 죽었드라네.

거 가서 살어오지 못허구 그랬는데, 아

덜이, 아들 삼형제가 다 커 가주구서는 아버지 웬수를 찾으러 간다구, 저기 좀 봐. 내 약이 괜 약이지 아주, 뭘 가지를 먹는지 몰라, 악 한 가지 안 먹구두 앉았는데, 저기 아부지 원수를 찾으러 간다구 만날 총놓는 그 기술을 뺐드래. [예-] 뺐는데,

“너희 아부지는 내가 물을 이구두 물동우다 총을 놓아두 총이 물동우가 맞아서 이냥 저기 되게 이렇게 그런 재주를 가져서 두 못 살어 왔는데, 너희들이 워치게 가서 살어 올거냐?”구

못가게 막 못가게 불잡어 싸니까,

“그 어머니 물 좀 이구 오라.”

구. [예-] 그래 큰 아들이 노니께니 물동우가 참 맞드라네.

맞어서 인제 큰 아들이 간다구 허니까, 삼형제가 다 따라 나서서 갔다구. 가선 인자 하난 이 고랑으루가구 하난 저 고랑으루 가구하난 저 고랑으루 가구, 셋이가 인자 그냥 다 각각 고랑으루 갔는데, 애 여수워 그런 것들이 막 사람 뒤 가주구 오빠라구 덤비구 막 그냥 오빠라 해 싸쿠, 그 지랄하는 바람에 인저 동생들은 다 거기서 찌꼈드라은그려(죽었다는 뜻임:채록자 주). 그러구서 인저 큰 아들은 악착같이 댕기문서 오빠라구 허거나, 뭐라구 허거나 다 잡었드라. 막 다 잡으구 잡으구 해 가주구, 자기 동생있는 고랑두 다 가서 잡구, 또 시째 동생 간 고랑도 다 잡구 인저, 그러구선다 잡구, 즈 동생 못 만나구 허망해서(허망해서:채록자 주) 내려오는데, 웬 집이 한 칸 있드라네.

집이 한 칸 있어서 거기서 그 집이를 들어간께, 그 짐승달 사람을 갖다 먹구선 유골허구 머리, 해골, 총 허구는 갖다 거기 쟁였드라네(쌓아 놓았다는 뜻: 채록자 주). [아- 예.] 쟁였는데, 거기 가서니 막,

"우리 아부지 유골이 여기 있고 우리 아부지 총 있걸랑 아들이 왔으니까 저기로 내달라."구.

그러니까, 총이 왕- 허구 올구, 유골이 악 떼굴떼굴 둥굴러 나오더랴. 그래선 인자 유골을 찾구, 즈 아부지 총을 찾구, 즈 이 동생 총, 뭐 다 찾아 가주구선 오니께 몇 해가 됐겄어 그래. [그렇죠.]

즈 집이선 쑥대밭이 되구, 즈 어머닌 늙어서 꼬부러지구 막, [일동 웃음] 그래서 인저 워떤 사람은 저렇게 성공하고 오는데, 우리 식구는 사부자가 다 죽었다구는 울어 싸트라느므그려. 그래 막,

"어무니 마 큰 아들은 살아 왔다."구.

올구 막 불잡구 올구, 즈 어머니 즈 아부지 유골 갖다 뵈구, 갖다 다 징사 지내구 그러구 살았다네. 또, 그런 얘기두 잘 허구 했는데, 이제 정신이 없어 다 잊어 부려서 못혀[일동 웃음].

### <구복여행>

제보자는 약 한시간 가량 설화를 구연한 후 피로한 기색을 보이면서 구연을 회피하였다. 작년에 교통사고 후 유증으로 인해 숨이 차고 정신이 흐려진 탓이라고 했다. 약 10분 정도 신변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생

각이 나서 구연해 주었다. 사람의 복은 이미 하늘에 의해 정해져 있지만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정해진 복을 바꿀 수도 있다는 운명극복의 인식이 담겨 있다. 어려서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라고 한다.

워티개 가난현지 하루에 서석 한 쯤, 서석, 나무 한 짐 팔아서 서석 한 되 팔아다 고걸로 삼시를 살았드래. 그렇게 서석 한 주먹씩 죽 쑤 먹은거지.

그러니께 하두 배가 구페 못 살겠응게, 그러니께는 하루는 나무를 두 짐을 혀다. 살다 살다 못 살겠으니께는 나무를 두 짐 해다, 새복에 팔구 저녁 때 또 한 짐 해다 팔구, 서석 쌀 두 되를 팔았드래유. 그렇게 밥을 먹을께 아녀, 죽을 면허구 밥을 먹으니까, 아유 밥만 먹어두 살 것 같다구 인자.

두번째 나무를 또 해다 놨드라. 또 이자 새복에 지구 갈라구, 아 식전에 지구 갈라구 허니 워떤 놈이 훌딱 가져 갔드라네, 나무를. [일동웃음] 그래서 인자 시번째 또 나무를 워떤 놈이 고것두 싱키 놔서 저기 가져 가나. 내 지켜 불거리구. 해다 놓구 나무짐 밑에 가, 또랑에 가 요렇게 [제보자가 웅크리고 누워 있는 흉내를 내면서] 누워자니께, 밤중 쁨 되니께 난데 읊는 희오리 바람이 불더니, 나뭇짐이 등등등등등등등- 떠 드니. 악 하늘로 올라 가는데, 희오리 바람에 나무장사꺼정 다 올라 왔드라, 악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 갔드라.

막 뿔관 쓴 할아부지가 막,  
“나가 여기를 어찌 왔느냐?”구.  
막 호령을 허면서 내려가라구 허니께니  
그 예기를 허드라. 하두 살기가 어려워서  
나무 한 짐 팔아서 서석쌀 한 되 쌩 팔아  
다가 죽을 써 먹는다, 하두 죽것어서 하루  
에 두 짐을 해 가주구, 새복에 한 짐을 팔  
구 저녁 때 한 짐 팔구, 서석 쌀 두 되를  
밥을 이틀을 해 먹으니까, 위면 놈이 육기  
나서 그것두 나무를 가주 가구 읊어서, 나  
못짐 해다 놓구 나뭇짐 속에가 도랭이 같  
구서, 옛날 비 오면 도랭이 쓰구 대녔지.  
[도랭이? 예.] 그 깔구 꼬부리구 드러 놨을  
께, 막 난데없는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나  
못짐이 막 통통 떠서 하늘로 올라오는 바  
람에, 저두 그냥 하냥 올라 왔다구 하구,  
그 아길 헛드라느므.

그러니께니,  
“네 복주머니를 봄 주랴?”

그러드라. 그래서,  
“예.”

그러니께니 서석 쌀 한 되 들은 복주머  
니를 [일동 웃음] 봄 주니, 그러니 참, 기갈  
이 자심허지. 그걸 보니,

“서석 쌀 한 되 들은 복주머니를 뱃으니  
니가 두 되를 해 가주군 밥을 먹을라구, 서  
석 죽만 뱃는데 밥을 먹을라구 허니 니가  
되겠느냐?”구.

안 된다구.

그래 인저 하, 그 소릴 듣구 기갈이 낙  
심해서 고개가 막 땅에 들어가구, 죽겄지  
뭐. 그 소릴 들을게 기가 맥혀서.

그러닝께 하두 그러닝께, 그 할아부지가,

“그럼 너 지나가는 복을 쪼-끔 주랴?”

그러드라느므그려. 그래,

“지나가는 복 어딨습니까?”

그렇께,

“목은 복이 있다구, 목는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생기면 그 복을 그 사람 쥐야지,  
그 사람을 팔세했다간 또 가난해진다.”

구 그러드라네. 그림서 주머니가 큰 데  
를, 그 인저 쌀 닷 되가 든, 쌀 닷 되 든 주  
머니를 잠깐 한 십년동안 빌려줄탱께, 가  
살아 보리구.

아 그래서 인저 그러구서 땅으로 뚝 떨  
어져서 내리 왔는디, 아 그 복주머니, 쌀  
닷 되 들은 복주머니를 건 뒤론 하루에 나  
물 석 짐을 해두 잘 되구, 아 뭐를 해두 잘  
되구, 아 잘 되드라. 잘 되서 한 십년 만이  
는섬지기나 사구, 밭섬지기나 샀더라네.

그랬는데 하루는 그지가 와선, 이 ‘자구  
가자’ 허드라. 남자 그지, 여자 그지 둘이  
가 자구 가지구 해서 못 잔다구 허니께, 마  
누라가 못 잔다구 허니께, 남자가,

“인간 근처에 와서 인간이 못 자는게 워  
디 있냐?”구.

자구 가라구. 그래서 인저 사랑방에다  
재워 주구선 불을 따-맛하게 때 주었는데,  
자다 들옹께,

“아구 배야-.”

여자 그지가 배가 불르드라느므.

“아구 배야-, 아구 배야-.”

그래 싸트래. 애를 날라구. 그래 인저  
그런 거지를 뱃옹께 재꾸 순행(순찰:채록자

주)을 돌았드라느그려. 그래 인자 따 가니  
께 어린애가 나서 '와-' 허구 올더라도느  
그려. 올으니께니, 그 남자 그지가 허는 말  
이 워 허느냐고 허니.

"우리 얘기 이름을 뭐라고 지까? 징계  
속이다 너 가주구 대너무 질탱게 '징계' 라  
구 질까? 거기서 '징계' 생길꺼정 복을 주  
라구 했는디, '징계' 라구 영낙을이 제 집이  
들어와서 났드라네. '징계' 라 그러지."

그러드라.

그래서 인자 나가서, 쌀을 깨갔한 바가  
지를 내려서 쌀을 씻쳐서, 밥을 국을 끓이  
구서. 한 바가치 퍼다 숟갈 둘을 해 주, 방  
에다 갖다 주니까, 이제 먹구 자라구. 먹구  
서 그 이튿날 미안하니까, 징계 속이다 얘  
를 너 가주구 간다구 그러드라느언.[예.] 그  
래 못 가게 했드려. 삼일이나 지나갈령은  
가라구, 삼일 또 갈라면 못 가게 허구, 삼  
일 지날 날 못 가게 허구, 그러구 또 그렇  
게 해 가주구.

"우리 집이서 여울이나 해 주구 나 혼자  
농사 못 지니께 하냥 짓구 살자."구.

이렇게 해 가주구 데리꾸 사는데, 징계  
아부지가 성일라나문(형이라는 뜻: 채록자  
주) 나일 더 먹어서, 그래서 이제 먼저 산  
놈 논 한 삼 마지기, 서, 먼저 산 놈 논 열  
마지기를 싹 벼서 징계네 주구, 밟두 먼저  
산 놈이루 싹 벼서 징계네 주구, 집두 그  
놈 주구서, 자기네가 집 사 가주구 논 얼마  
지기 밟 열마지기, 그렇게 해 가주구 똑같  
이 노나 갖구 가니께, 그 그지네 징계네두  
잘 살구 그이두 잘 살구 똑같이 잘 살드래.

형님 동생 허구 [그럴죠].

허허허, 재미스런 얘기 했옹께 이젠 그  
만 혀. 그 그기 와서 잔다 월 때 못 잔다고  
거 팔세했으믄 복은 따라서 갔을텐데, 그  
렇게 잘 헛기 땜에, 복을 노눴기 땐에 잘  
살드래. [하늘에 뿔 달린 할아부지는 누구  
예요?] 그건 이제 뿔관 할아부지는 그게  
복, 이렇게 복 주시는 할아부지. 하늘의 별  
있잖여. 별이 그게 큰 놈은 부자 사람 복이  
구, 요리 쇠꼬만건 가난한 사람 복이래. 하  
늘의 별이 그게 복주머니랴. 하하하, 큰 놈  
탄 사람은 잘 살구 그 쇠꼬만, 뻔쩍뻔쩍 허  
구 웃 사는 놈은 아주 쓰러질락 쓰러질락  
그렇게 살구.

### <깍지바위의 유래>

[구연자] 임길호(남, 40세)

[구연장소] 화성면 수정리

임승엽씨댁

[구연일시] 1995. 4. 26(수).

[조사자] 권두환, 정재민, 송팔성,  
이대효, 한길연, 이영석,  
곽지윤.

임승엽씨댁의 소장문헌에 대한 조  
사를 마친 후 저녁식사를 하였다. 저  
녁식사 후에 임승엽씨의 주선으로 마  
을사람 3명이 모여 화성면 일대의 설  
화 채록을 시도하였으나 단편적인 이  
야기 밖에 듣지 못하였다. 제보자 임  
길호씨는 마을의 전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내

용에 대해 신뢰하지는 않는 듯하였다. 따라서 그는 설화의 제보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는데, 이 <깍지바위의 유래>도 몇번이나 간청하여 들은 것이다. 구연 말미에 이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신뢰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연령이 젊은 만큼 목소리도 분명하고 논리적이었으며, 되도록이면 채록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 설명해 주었다. 이 전설은 어려서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이라고 한다.

음- 우리 동네 저기 절터에 가면 온, 옛 절터에 가면 온 저 절터가 어느 지점이죠? 절구 꼭대긴가요? [마을 사람 : 거기 두 있구, 조금 저기 황해바우 그 위에 두 있구.] 아뇨, 거기 저 원천있는데 말요, 새암, 새암을 나오는데, [마을 사람 : 그, 절꾼?] [조사자 : 예 절터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온 그 바위가 옹, 예전에 깍지동이라고 하잖아요. 요 뭐 고구마 통가리 같은 그런 형태의 바위가 있는데, 그게 이 층으로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 틀인데 그게 중간에 절단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말씀대로라면은 뭐 여기에 있는 오소산 아래에 한 저 팔만구암자라는 절이 있었다구 하는데, 팔만구암자라는 얘기는 뭐 저기 금강산 팔만구암자 얘기 나오듯 수많은 절이 있는데,

우리 동네는 절터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뭐 유명한 사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소소한 암자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여러 암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저기 할아버지 말씀대로라면은 고려적부터 그 많은 절들이 있었는데, 이 중들, 스님들이 그 뒷들이 많아지니까, 저기 수가 많아지고, 고 다음에 수가 많아지므로 해 가주구 파워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역적 모의를 했다 이거죠. [예-] 자기들이 뭐를, 힘을 믿구서 역적 모의를 해 가주구 저기, 으墉 여러 중들이 모여 가주구 그 절에 모여서 뭘 하는데, 그 모의 중인데 한밤에 그 모의를 하고 있는 차에, 뭐 밖에서 하늘에 서 막 우뢰소리가 나면서 그런 소리가 들려 오드라 말이죠.

“만일 너희들이, 너희들이 저기 천명을 거스르고, 으 역적 모의를 계속하고 반란을 일으킨다면 이적이 생겨날 것이다.”

하는 그런 천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들이 놀래가지고 밖에를 나가보니까 전에는 그 바위가 양분이 되어 있었는데, 부석사가 그런 뭐, 뭐이죠 아마, 뭐 그 바위가 떴다는 그런 상태였는데, 양분이, 따로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 바위가 날라 가주구, 그 위에 가서 딱 올라 앉었다는거죠. 그래서 뭐 정확한 형태는 아닌데 지금도 가보면은 이중구조로 돼 있다는거죠. 그게 전체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구연자는 양팔을 벌려 동그란 모양을 보여주면서] 큰, 고구마를 담아놓는, 예전에 같은 경우 수수대나 이런 것으로 저기, 밭을 엿어

가주구 뻥 돌려 만들어서 고구마를 담는다 든지, 저 콩깍지를, 저기 콩을 타작하고 나서 나머지 콩깍지를, 소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데 그것을 담아두는 저기, 뭐야 이거, 커다란 통을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니까, 중들이 놀라 가주구 다 훑어져 버렸다는 그런 얘기여.

그런데 제 생각은 그것이 따른, 크나큰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예전에 고려적이라는 얘기가, 그냥 구전인데, 고려적이라는 얘기 자체가 예전에 불교가 굉장히 성했었다는 얘기 하고, 고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저기 성한 만큼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파워를 밖으로 표출할라고 하는 그런 의식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과 동시에 그 하늘에서 제지를 가했다는 얘기는, 아 여덟 선초 시절 정도로 해 가주구요, 전체적인 대사가 저기 불교문화에서 유교문화, 순종적인 유교문화 쪽으로 옮겨 가는 형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제나름대로 생각은요. 제가 역사공부를 조금 한 입장에서 보면는, 하하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래요.

### <명당을 잘못 쓰게 한 가짜 풍수>

임길호씨가 <깍지바위의 유래>를 구연한 후, 명당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들려준 것이다. 구연자의 조상인 송파군의 묘를 잘못 쓰게 된 이야기를 하고, 이를 유불의 대립 때문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우리 송파군께서 산소가 거기 들어오게 되었는데, 우리 송파군께서 저한테 몇대조죠? (청중에게)아 빨리 말씀하세요. 그 분께서, 거 그 분이 여기에 묻히시게 되었다 말야. 돌아가셔서 가주구. 저쪽에서 돌아가셔서 여기 이장을 하셨는데, 그 이장이 아니죠. 여기에 묻히시게 되었는데, 그 저기 정월에다가 터를 딱 잡았어요. 월을 딱 찁어가주구 터를 잘 잡았는데, 저 중이, 지나가는 중이,

“저기 여기는 정월이 아니다. 여기다 자리를 쓰면 자손이 굉장히 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길 하면서,

“바루 위루 올려다 쓰라.”

구 했대요. (청중: 밀이, 밀이)

“밀에루 내려 쓰면 자손이 굉장히 번성 할 것이다.”

해 가주구. 이제 밀에다 내려 쓸려구 매방 자리에 시신을 드는 순간, “뽕”하면서 학이 날라갔다는 것에요. 학이 날라 가주구, 아니 그래 가주구 어딜루 날라갔느냐 먼온, 저 윈겨불 윈겨불로 날라갔는데, 윈겨불로 날라가서, 그 정월이 할아버지 거 누구여, 하하하... 그 낭반 묘를 거기다 써 가주구 거 정찰댁 집안이 잘 됐다는거지.

그런데요, 거기 이름 자체도 윈겨불이라는 이름 자체도 한역하면 영계죠. (청중: 음 영계여) 애, 윈겨불인데, 그런데 저기 어 여기서 날라갔다는 의미허구, 학이 날라 갔다는 의미허구 지명허구 그 지명허구 딱 맞아 떨어지고, 고 다음에 저는 이분(=채록자를 말함)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거

기서 뭐하기 보다는, 제가 들은 사향으로  
는 그 저기 송파군 산소자리 옆쪽에 제가  
보기에는 물안이 쪽이 아니가 싶은데, 그  
쪽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유교주의자하고,  
우리 송파군은 철저한 유교주의자, 유학자  
였으니까, 문파급제하시구 허니깐, 한 분이  
니까, 유교주의자하구 불교쪽 하고 그 조  
선 명종조 이 무렵인데, 서로 상극이었으  
니까 이 양반들이 묘소를 쓰면서, 후손들  
이 묘소를 쓰면서 절을 부서 버리게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제가 추측이  
죠, 시나리오를 만드는건데, 그 저기 피해  
를 본 스님들이 우회를 해 가주구 다른 중  
한테 지나가는 척 하면서 그 옛날부터 그  
런 것 있잖습니까. 지나가는 과정이 자리  
정해 줘 가주구 터 좋은 자리 잡는거. (그  
럼요.) 이런 거처럼 지나가는 거처럼 가장  
을 해 가주구 중 하나를 시켜서 지나가게  
하면서 거기다가 용,

“그 자리보다 내려 쓰는 것이 당신에게  
훨씬 좋을 것이다.”

해 가주, 우리가 우리네 집안이 먼저  
불교쪽에 체방을 놨다 하면요, 이 스님들  
을 불교쪽에서는 유교주의자를 한테 우회  
해 가주구 다시 체방을 놓은 것이 아닌  
가 하고, 서로 부딪치는 관계, 불교하구  
유교가 어 근 조선 성립 이후에 몇백년  
이 지난 이후에도 서투 상충하고 있었다  
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 <살인 면한 짐과>

[구연자] 이창근(여, 75세)

[구연장소] 상동

[구연일시] 1995. 4. 26(수).

[조사자] 권두환, 정재민, 송팔성,  
이대효, 한길연, 이영석,  
곽지윤.

구연자 이창근은 임승엽씨의 부인  
이다. 안방에서 혼자 있다가 구연자  
를 불러서 스스로 구연한 이야기이  
다. 완전한 내용을 구연하지는 못하  
였지만 이해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이  
다.

어떤 사람이 뭐 짐을 하니까요. 저 '참  
을 인' 자를 천 자를 써 불이라구, 천자, 그  
래서 천 자를 써 불이구서, 그 워디 마실을  
갔다가 얼두시쯤 오니께, 상투겁을 한 남  
자가 자기 부인을 안구 자드레유.

그래선 먼저 화가 복받쳐서 바깥에 나  
가서 칼을 싹 갈아 각구서 들어 왔죠. 들어  
와서 먼저 상투 꼴은 사람허구 여자허구  
죽일라구 그렇게 막 허니께, 언뜻 생각허  
니께, 짐을 생각허구 천장을 쳐다 보니께,  
'참을 인(忍)'자가 천 자 써 불인 거 보구선  
'내가 참아야지.'

허구 보니까, 그 여자가 부시시 일어나 보  
니 여동생이드라.

여동생이 머리 감구서, 옛날 머리가 질  
으니까 아래 상투 꼴구선, 그래선 인, 참을

인자 아니었으면 살인났지. 죽였지. 그 애 기가 아주 전설이남.

### <동자심>

또 한 가지는, 예 부모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점을 허니까,

“자기 아들을 삶아서 엑이안다.”구.

예 옛날에 저기 문뎅이가 사람 고기먹어야 산다구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점을 허니까,

“그 아들을 삶아서 부모를 뵐려야 부모가 살어 나시겠다.”구 허니까,

가만히 생각허니까, 굴방에 갔다 온 아들을, 물을 한 술 끓여 놓구선, 저기 술에 번쩍 집어 넣드래유. (예)

아 그러구 보니까 효잔께 큰 생삼이 그 걸 먹구선 어머니가 나섰어요. 그 약을 그랬는데 아들은 살어 오구, 굴방에 갔다 오구 깜짝 놀래선 이만한 삼, 산신령이 하두 효도를 허니까 복을 준거요. 그 효성이 지극허면 복을 받아요.

### <과부의 절개를 시험한 선비>

좋지 않은 소리라그려, 한 사람은 옛날 과부가 살았는데 이렇게 과부가 참 바느질을 하다가, 좀 맘이 그려서 실을 가주구 송을 봤는데, 아 밤이 다 됐나 허구서 보니깐, 허끈 선비가 왔는디, 바느질을 헐렁께 자꾸 다리를 엎드려요. 열두번을.

그래 인저 가만히 쳐 놓구 그랬는디, 헐 수 읊이 참다 참다 같이 잤지. 잤는디 그 이웃집내끼 올마나 숭을 보네. 같이 자구

승 본 사람들 이렇게 보라구 이년 보라구 허더니아 저기 부엌에서 악 이렇게 버섯이 나 갔구 버섯이 나갔구 터락돼서 죽었다.

근게 인저 암만 절개가 있더라도 호기심이 나서 그런 저 여자가 절개를 지키나 보느라구. 선비가 와서 바느질 품 파는 어자허구 절에 와서 열두번 자구 밤새 다리 엎으먼 치어 놓구 쳐 놓구. 결국은 맘이 변하드래. 절개라는 그게 제대로 못 지켜.

### <답변 잘해 간택된 처녀>

참 저기 이 동네 처녀들을 수백명을 데려다가 질문을 했어.

“꽃 중에 무슨 꽃이 젤 좋나?”

허니까, 전부 그 아가씨들이 그저 연화꽃, 뱅, 목단꽃, 벌걸 다 쫓아 생겨.

그런데 인제 젤 꽃으로다 한 색시가 있다.

“꽃 중의 젤 좋은 것이 면화꽃이죠.”

면화꽃, 면화꽃은 목화요, 목화.

그래서 인제,

“새 중에 무슨 새가 젤 좋으나?”

허구 보니까, 이새 저새 참새, 비새, 호새, 팔새, 앵무새, 공작새, 벌 새 다허는데, 그 입구쪽의 ‘면화꽃 젤 좋죠’ 허던 색시가 있다 허느 말이,

“이새 저새 먹새가 젤 좋죠.”

근데 인제 다,

“고개 고개 무슨 고개가 젤 어렵고 지나” 구 허니까, 밤새 저 그저 이고개, 저고개, 지력재고개 저기 아주 벌걸 다 생겨.

그 여자가 하나가 허는 말이,

“이고개 저고개 보리고재 절 어렵죠.”  
이래드래.  
그래서 그 여잘 부인 삼았죠.

### <달라지고개>

하나는, 그 남매가 무신 고개를 넘어 가드래요. 그 남매가 고길 넘어가는디 '달라지고개'래. 이름이 달라지고개. 그래서 가는디, 참 여동생은 모시옷을 상꼽허니 입고 앞을 세우고 가구, 오라버니는 뒤를 따러 가는디

아, 가는 도중에 달라지고개서 쏘내기가 쏟아졌어. 아 쏘내기가 쏟아지니까 그 모시옷이 달썩 젖으니까, 그 모시옷이 올매나 그 젖은 여자가 그게 해사하니.

참 그게 맘이 그렇게 오빠가 있다가 허는 말이, 그 고추 일어 났어. 그래서 '이게 사람이냐'구,

고추를 잔뜩 들팍이루 찢어서 죽었지.

근게 인제 누이가 하는 말이  
“아이구, 달라지 달라지.”

그래서 달라지고개가 됐어. 그 옛날부터 달라지고개, 그 염치가 없다, 고추 단 사람. 그게 정력이 좋은 사람은 그럴구 정력이 없는 사람은 모두 안 일어나. 그런 얘긴 안 혀 얘긴데.

### <자장가>

이창근씨는 수정리에 거주하는 임한주의 후손 임승엽의 부인이다. 임승엽씨와 소장문헌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보자가 옆에 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거들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자신이 어디에 여행을 갔다가 노래를 잘 해서 아주 칭찬을 받았다고 하길래, 알고 있는 노래를 불러 보라고 했다. 처음에는 창부타령과 소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불렀다. 젊어서 발농사를 하면서 부르던 노래를 청했으나 알지 못한다고 하여, 이 자장가를 불러 달라고 했다.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엄마 품에 폭 안겨서  
잠노래를 칭얼칭얼  
그쳤다가는 또 허면서  
꿈나라로 새근 새근  
저녁 노을 사라지면  
돌아오는 밝은 달에  
우리 아기 잠든 일굴  
곱게 곱게 비쳐 주네

### <효자시험>

[구연자] 이환옥(남, 75세)

[구연장소] 화성면 경노당

[구연일시] 1995. 4. 27(목).

[조사자] 권두환, 정재민, 송팔성,  
이대효, 한길연, 이영석,  
곽지윤.

술먹어서 잊어먹었어도 그렇게 대략 아는디. 효자라고.(대략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친구들 둘이 하나는 살기가 부자

고 하나는 살기가 어려워. 그런데 내 아들이 효자냐, 니 아들이 효자냐, 효자 얘기가 나왔거든, 그런걸.

“자네 아들이 효잔가. 내 자식이 효잔가, 우리 한번 시험해보세.”

“아 그려. 그런데 재 자식은 효자랄 게 없어 불효하. 효자랄 게 없는데 그래도 다만 효자라고 잘한다그려. 그래 우리 시험해 보세.” 있는 사람이 그 효자아들 뒀다는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저녁 먹고 하루 저녁에 시험을 하는데 친구가 자거든. 자는디 자기 아들이 밥상을 갖고 오냈는데 아들이 와서 이것도 집어먹어 보고 저것도 집어먹고 지범지점한단 말여. 있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놈 후례 아들놈이여. 어른 밥상 갖다 놨는디 저버텀 먼저 들어와서 지범지범 집어먹고 거시기 한단 말여. 고현 놈이라구, 효자가 아니고 불효가 막심하고 고현놈이란 거여. 거기부텀 안목에 앓 찼어. 그런디 차서 같이 한방에서 자는디 겨울인데 한네서 눈쓸고 자기 아들이 한참 쟁건하고 들어더니니 제의 의복을 훌령 벗어서 저의 아버지 머리맡에 놓고 제 아버지 의복을 말끔 입고 나가서 새 모이주고 쑥쑥하게 하고 그러고선 나중에 들어와서 밝은데 이제 벗어놓고 제 의복을 입고 나가거든. 그러니 제게 보온도 없고 천하의 후례놈이지, 그럴 수가 있나 말여. 그려 그런데 안목이 없고 고안놈으로 봤지.

“자네 아들 제기 효자라더니 그런 벳이어딨어. 후례 아들놈이지. 자네 의복 입고 그렇게 쟁건하고 다녀더니 그렇게 벗어나.”

“글쎄. 그런데 저는 나 추워한다고 지가 입고 다니다가 한참 입고 다니다가 머리맡에 벗어두면, 저 입고 벗어두면 땃뜻하니까 그래서 그런다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려.”

“그럼 왜 진지상 갖다 놨는데 왜 그렇게 지범지범 집어 먹어.”

“글쎄 그것도 잘못인디. 다 내가 가르치지 못한 탓이지. 맛이 있나 없다 보느라고 저버텀 제 맛보고선 그렇게 그래서 그렇다네 그려.”

“그렇겠다.”

“그럼 자네도 우리집으로 가 보세.”

그 집으로 갔어. 가니까 참 반찬 갖춰서 밥상을 갖다 잘해서 잘먹고 자는데, 그렇게 시험해 보는데.

“나중에 누구 아들이 효잔가 돼지 하나 잡아서 선뜻 알아서 동겨매고 거기 알아서 시험해 보세.”

그래 그 둘이 돼지 하나 잡아서 칼로 목따서 선뜻 둘둘 말아서 집어지고 자네 아들한데가. 있는 집 아들한테, 효자라는 아들한테 가서

“밤에 애 왜 그런지 아무 어른이라고 친구가 있는데 오늘 저녁 워찌하다 살인을 했단다. 사람을 죽였는디 강취달라고 내개로 집어지고 왔으니 워찌하나?”

그러니께.

“아이고 참. 아버지 이제 망령이군 큰일 나요. 어디라고 어디다 감춰요, 감추긴, 죄진 양반이 살 자릴 어디다 감춰요? 못해

요.”

벌벌 떨고서라부네 않았거든.

“내 자식네집으로 가보세.”

자기 아들네 가서 그 애길 했어. 그 애  
길하니까,

“하이고 침! 방고래를 가더니 호미로 다  
파고 어쩌고 해서, 방고래에 감추려고 파  
고 어쩌고 해서……”

“애 고만둬 방고래 파고 거시기 할 것  
없다. 그냥 둬라.”

뒤곁에 가더니 집통을 끌어 자치고선  
집통에다 시체를 노라고 집통을 끌어자치  
고 참 자기 성의대로 하거든. 그 때서는

“그럼 소를 끌고서 지붕으로 올리가자  
고 해 보세.”

소를 끌어갖다와서는

“지붕에 올라갈테니 사닥다리 좀 갖다  
놔라.”

그러니까 사닥다리 갖다 놓고 소를 끌  
고 지붕으로 올라갈려고 “이려! 이려!” 하  
고 잡아 당기거든. 차마 말이 그렇지 지붕  
위로 소 끌고 올라가겠네?

“그만둬.”

그 있는 집 아들한테 가서 그러니까.

“아버지 이자 망녕들었구먼, 워찌키 소  
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요?”

번번 자기 아버지 말을 반대하거든. 그  
래서 그때는

“내 자식은 소금섬을 짚어지고 물로 들  
어가래도 들어가. 내 말 어기질 않아 좌우  
간.”

그래서나무니 그때서는 참 효자로구나

그렇다는께. 그렇게 부모 말 어기지 않고  
그냥 거시기 하는 사람이 워디 시방 있어.  
참.

### <신유복전>

옛날에 평산 심씨가 있었는데 여기도  
많이 사는데 그 자손이 장절공 구대손 신  
유복인디, 그 분이 조실부모하고 혈 수 없  
는 이께 으더 먹으려 댕겼거든. 으더 먹으  
려 다기느라고 그 우죽할꺼. 아무리 거시  
기하더라도 헌털방마에 오챙이를 짚어지고  
댕기면서 “밥줌 쥐쇼, 쥐쇼” 하며 으더 먹  
으려 다녔는디. 그렇게 한군데 가서 떡 그  
렁니까, 대가집이 잘살았던 모양이여. 큰  
대가집인디, 대가집에서 나와서 보니까, 상  
을 보니까 으더 먹으려 당길 상이 아니여.  
그래,

“내 성이 모나?”

“평산 신가요.”

“너 짚어진게 모여?”

밥보쟁이에 짚어진 것을 보니까 죽보를  
넣서 짚어지고 댕겨. 그 양반이 떡 죽보를  
보니까 장절공의 구대손이고, 조실부모하  
고, 신유복이라. 그렇게 귀한 집 자손이여.  
그렇게 그 동네에 김호장이라고 하는 분  
하나가 있는데, 김호장이라고. 옛날에 호장  
이라고 큰 대가집 거시기인디, 딸 삼 형제  
를 두고서라무네 독선생 앉히고 글을 쏴악  
가르치는디, 참 호강스럽게 가르치지. 그렇  
게 김호장이라고, 대가집에서 “가 오라고  
해라.” 해서 갔다이거. 그러니까 신유복 개  
를 놓고

“애 시방 으더먹으러 다니지말고, 그럴 애가 아니여. 그렇니까 사위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억압적으로 사위를 삼아야 한다는거. 그러니까 하 기액히거든. 그렇게 딸 삼 형제를, 큰딸하고 다 애길하고, 신유복을 데려가면서

“저 건너 아무 대가집에서 너희 사위 안 삼으면 나는 이 동네에서 살지 못한다지, 견디질 못하게 됐어. 그런데 너희 애한테로 시집가야 혀.”

그렇게 큰딸하고 작은 딸하고

“아버지, 자식을 나서 죽일태면 그 자리에서 엎어나서 죽이지 저런 거지하고 살란 말여? 저건 거지하고 살란말여.”

둘은 전혀 반대여. 그렇께 막대 딸 하나 가 있다가

“아, 정 그러시다면 제가 살지요.”

그러니까 위로 형들 둘은 나이도 몇 살 안먹은 것이 저게 서방에 흰장한 게지. 나 이도 얼마 안 먹은 것이 서방에 미쳐서 저 런 거지에게로 시집간다고.

그랬거나 저했거나 그날부턴 이제 그렇게 살리고 얘기하고

“나는 내가 얄어먹더라도 이 남자랑 살 테니 그런줄 아쇼.”

하니까 그날부턴 내쫓았어.

“내까짓년 집에 있을 까닭이 없다.”

내쫓구선 그 위로 형만 독선생한테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데. 갈 때가 있나. 그 동네 물방앗간에다 둘이 바자지 들고선 만 날 으더다 먹는데 저의 집은 이제 얼씬 못

하고. 못가게하니까. 으더다 먹고 사는디 나이가 성년이 찬다네. 자기 부인이

“여보 남자는 공부를 쪼금 해야 하는디.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할 꺼 아녀.” “아, 여보. 공부를 하자니 내사 으더 먹으려만 다니는 놈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무슨 공부를 하란 말여?”

“아녀 그래도 공부를 해야 혀.”

자기 머리를 훌랑 깍아 머리털 팔아서, 옛날에 그게 쌓 몇 말값 했어서.

“절간으로 가쇼.”

하고 절간으로 보냈어. 절간에 가니까 공부를 시켰어. 절간에 가서 몇해 공부를 했어. 한삼 년을 했던지 몇 해를 했어. 재주가 어떻게 둠 있던지. 모르는 게 없었어. 무불통제야 그런데 과거날이 떡 돌아왔는디. 자기 부인이

“공부를 얼마나 했나 한번 집에 내려와 보쇼. 시험해 볼 게 있소.”

내려갔는데

“그만하면 과장에 들어가서 과거 봄도 돼오. 고만하고 과걸 보러 가쇼.”

“가라고” 아. 과걸 보러가다니 내가 입을게 있소 뭐가 있소? 공부를 잘했소? 그럴게 가 되나?”고.

과거날이 돌아왔는디 그 여성 둘은 당나귀 잡아서서무네 말꼬등 잡혀서 당나귀 잡아서, 시방은 차가 있어서, 옛날엔 차가 없어서, 말타고 그렇게 참 좋은 의복으로 치레하고. 그리고서라부네 서울가서 좋은 여관에 가서 과거날을 기풀리고 있어. 그

런디 신유복이란 분은 당나귀가 있나 무어 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 걸어가는디 걸어서라무네 하는디. 글 지어서 올리려면 명주 몇 자 사야 하는겨. 옛날에 그거 살돈이 있나 무에 있나.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랑 어떻게 구성했는지 명주 서너 자 살 것허구, 며칠 먹을 거 해 줬던 모양이여. 그것 만을 질어지고 오장칠을 짊어지고 으더 먹으면서 서울로 올라간겨.

저의 동서 둘이 어떤 여관에서 지낸다는 소리를 듣고 그 여관을 찾아갔거든. 인사나 할려고. 인사나 할려고 찾아갔거든. 근디 그 동서들이

“으 저 거지 으더 먹기 질나갖고 참, 으더먹기 질리갖고 여기까지 우리 있는 데까지 처먹으러 왔구나!”

하고 드러를 못하게 내쫓았어. 인사도 않고 드러를 못서게.

그래 나와갔고서 그날 저녁에 꿈을 꾸는디 하늘에서 청룡황룡이 떡 내려오더니 만 구중 명주전의 팔명주, 뜻쓰는 것인 팔명주를 청룡황룡이 물아서 하늘로 올라간단말여. 그래 이튿날 배고파서 팔죽전이지 어딘지 팔죽을 사먹으려고 하는디, 팔죽장 수 할애가 꿈을 꾼게 하늘에서 청룡황룡이 내려오더니만 팔죽 한그릇을 먹고 올라가. 그런디 신유복 그분을 아니. 그 이튿날 돈도 없고 배는 고프고 팔죽전에 가서 팔죽을 찾아 한사발 먹고 팔죽값을 내려하니까, 그 팔죽장수 할애가 그 꿈꾼 것을 생각하고,

“아이고 지발 죽값 안 받을 테니까 그만

두시라.”고.

안만 쥐도 안 받아. 글지어 올리려고 명주전에 가서 좋은 놈은 소용없고 팔면조를 다가

“이거 얼마나?”

고 하니까 안 받아. 돈 줄려고 하니까 안 받아. 그 꿈꾼 것 생각나서.

그래서나무래 과장에 들어가서 글을 떡지어서 올렸는데. 그 사람이 급제를 했어. 장원금제를 했어. 그러니까 흥패백패, 옛날에 급제말고 흥패백패가 있거든. 그것을 줘서 밥보쟁이에 넣고 절룩절룩 며칠을 걸어 내려 왔어.

그렇게 저 동서들을 둘은 글지어 올렸다가 낙망해서 떨어지고 소용없으니까 당나귀 잡아타고 시골로 내려왔어. 장인 장모가

“아이고 이번 떨어지면 공부 더해 갖고 나중에 가서 성공하면 돼지. 그저 섭섭할꺼 없어. 걱정할 거 없어.”

그려고 그러니. 신유복은 내려오면서 밥어더 먹으면서 오챙이 질어지고. 그러니까

“서류 역졸들은 읽어요. 서류 역졸은 나라의 아무날 아무시에 아무대로 대령하라.”

그렇게 약속하고 자기가 시골 내려와서 보니까 자기 부인은 밥 어더다가 혼자 먹고 자기 남자 오기를 기둘리고 있어. 오챙이를 질어지고 절룩절룩 들어가니까

“아 여보. 그 오챙이 좀 벗어내버리고 들어오유.”

급제했으리란 생각은 못하고 말여.

“아녀 그 오챙이는 함부로 할 오챙이가

아녀.”

구질구질한 오쟁이를 짊어지고 와서 그  
울막 속에 들어가 자기 부인한테 흥패백패  
를 떡 내놓고 그 급제한 것을 애길하거든.  
그러니까 하도 고마워서 나가서 밥을 지어  
서 밥 세 그릇을 갖다놓고 흥패백패를 아  
랫목에다 놓고 시방말로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건너 처형들 둘은 저 건너  
거지네 집은 배고프니까 밥해 먹는지 저녁  
에 불妖怪하고.

“그럼 가 봐라.”

해서 와서 보니까 생전 안 보던 흥패백  
패, 붉은 몽탕이 흰 몽탕이를 아랫목에 세  
워놓고 기도하고 있거든.

“저 거지들 우릴 망하라고 방해한다. 우  
리 망하라고 방해한다.”

그리고 싸게 건너가서

“뭐하고 있나?”

하니까 그 얘기를 쭈욱 했어. 그러니까  
김호장이란 분은 양반집 거시기로 댕겨서  
그 표식을 알거든, 그 이칠. 그러니까 벌벌  
떨구서 있으니까. 아 거지들이 방해하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벌벌 떨고  
있다.”

고 하니까. 자기 장모가

“이년들 잡말을 그냥 하네. 저 건너 움  
막에 사위님이, 사위님이 필히 급제해 갖  
고 와서 그려. 그렇다고 벌벌 떨어.”

그 이튿날 서울서 서류 역풀들이 육모  
방망이를 들고 아무데로 출도하라고 했으  
니까 말끔 대령했던 말여. 그러니까 신유  
복이 이렇게 충충히 앉아서, 자기는 맨 위

에 앉았고, 자기 장인 장모는 옆에 앉히고,  
동서는 그 밑에, 자기 처형은 그 밑칸에 앉  
히고, 자기 동서들 둘은 불잡아다가 그 마  
누라 앞에 엎어 놓고 불기만 때리고 지치  
지도 않게 때렸다는거. (조사자 : 할아버지  
그거 말씀으로 들으셨어요, 책으로 읽으셨  
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저 잘났다고 잘난  
척 말고, 못생긴 사람 팔세하지 말고, 깔보  
지 말고 서로. 사람은 서로 깔보는 거 아  
녀. 그리고 옛날부터 맨날 명인들 대인들  
생긴 것은 천인의 몸으로 생기고, 병신몸  
으로 생기고, 사람은 제가 배우고 똑똑하  
고, 잘났다고 남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되  
는거. (조사자 : 그런 뿐의 암행어사 얘기  
도 많이 있으시죠?) 대충 거시기, 사람을  
찾아보아야지.

### <안동김씨 시조>

안동 김씨 시조가. 안동 김씨라는 이조  
때 벼슬 제일 많이 해 먹고 그런 양반이여.  
안동김씨, 안동 김씨 시조에게 무남독자  
외아들이 있었는데, 장가를 들이려 갔어.  
그런디 서로 대갓집인디, 옛날에는 간사를  
하나, 소리청에서 떡 예식하는데 원삼 족  
도리 있고, 이렇게 가리면은 양짜에서 드  
러나 볼 수도 없고, 신부의 얼굴의 못보는  
거. 예식하고 첫날밤에 신랑이 예식장에서  
잘 못보고 신방으로 떡 들어감에 문 한짝  
떡 열고 다리하나 드려놓고 신부를 보는데,  
그날 저녁 신부가 이걸 내리고서 얼굴을  
들거든. 신방에서, 얼굴을 드는데 보니까,  
두눈이 보얗게 물었어.

봉사예요 그려. 그러니 신랑이 하 막혀서, 인생을 좌우하는 자리는 이 자리인디 신부가 저 지경이니 신방에 들어야 옳을거냐, 안들어야 옳을거냐, 문 하나만 열고 다리는 드려놓고서 망설거리는 첨이여. 그러니까 두눈이 보얗게 얼은 신부가 보든 못하지만 문 하나 여는 소리는 있고 닫는 소리는 없으니까, 벌써, 신랑이 생각하느라고 그러는구나 하고,

“여보, 나는 이날 두 눈이 없어서 그댈 보들 못하니 신방에 들지 말고 소박, 참 신방에 들지 않아야 옳소.”

신부가 떡 그 소리를 하니께 신랑이, 참 신부가 그 소리를 혀, 그러니까 신랑이 그 소리 한마디에,

“허허 저 주제에 그 소리가 나오니 저 게 참 거시니나?”

그 소리 한마디에 깨달아 깊고살라무네, 문을 딱 닫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요? 당신도 숫처녀로 한 길 쪽하고 나도 그렇고 그런디 이 자리 인연을 맺는데 왜 들지 말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요?”

신방에 들어 갖고선 잘 자고선, 이제 그 이튿날 자기 아버지 자는 데 가서 무릎 꿇고서 석조대좌한거.

“효자는 불효가 막심한대 합니다.”

하니까.

“허허 할 수 없구나. 들어와라.”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 아 잘했다, 잘했어, 잘했다.”

그래 그날 신행을 해갖고 집에를 떡 들

어가는데 자기 어머니가 벌써 전갈로 다 그 소리를 듣고 머리를 싸고 들러 누웠어. 그러니까 가다 말고 가마 안에서 떡 내려 갖고서 자기 어머니 안심을 시키는거.

“어머니 걱정 말으셔, 내가 그 전에 어머니 말 한번 듣던거 두번 듣고, 그대가 할일 내가 대신하고, 손톱만치 걱정 말으셔.”

내가 안심시켜 갖고, 그 장가를 들어 갖고 사는디. 세상에 대파가 나기 시작해 갖고 안동 김씨 시조노릇을 했어, 시조노릇. 그 몸에서 대파가 나기 시작해서 말끔, 그렇게.

(조사자 : 그래서 안동김씨 가문이 번성 했군요.) 웅. 그러니까 사람은 오로지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병신에게 행패 말고. 그러나 그게 달인이니까 그렇지, 달인이 아니면 그 말 무슨 소린지 알아 듣지 못해서 아마 그 날 저녁에 소박하면 신부는 자살해서 죽을테여, 자살해서. 그러니까 벌써 번쩍번쩍 말 한 마디라고 듣고 하니, 옛날에 달인이여.

#### 라. 청남면 일대(4조)

##### <농가>

[구 연 자] 앞소리: 류진영(71세, 30년 전에 청남면 천내리에서 인양리로 이주), 뒷소리: 한상복(76세), 구연갑(70), 윤두학(70세), 윤병서(55세) 등 10명 정도의 인양리 주민들

[구연장소] 인양리 마을회관

[구연일시] 1995. 4. 27(목).

[조사자] 정대진, 손태도, 조향옥,  
류하영, 하시모토 지호,  
김은아.

4월 26일 청남면 면사무소에서 조사자들은 김종윤(부면장)씨로부터 '農歌' 채록을 추천받았다. 제보자 소개를 받고, 그 날 천내리에 사는 정용근씨의 '農歌'을 조사했으며, 다음 날(4월 27일) 인양리의 류진영씨를 찾았다. 그 날 저녁 마을 회관에는 십여 명의 주민들이 인양리 이장의 도움으로 모여 주었는데, 이야기꾼임직한 아저씨 한 분이 먼저 이야기들을 꺼내는 통에, 밤 10시가 넘어서야 소리(農歌)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조사는 밤 12시 무렵까지 진행되었다. 유능한 창자인 류진영씨는 직접 장고를 치며 農歌를 불렀다. 이 때 뒷소리꾼들은 기억이 회미하다며, 자신들의 기능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는데, 류진영씨의 도움으로 그나마 온전한 農歌를 채록할 수 있었다.

### <모내기 소리>

(가곡이나 시조에 통하는 긴 장단. 16박의 장단인 듯함.)

어~~~ 어~~~ 아~ 어~~~ 어어~  
에~~~ 에~ 에라 삼어~~~ 디오~

일락 서산에~~~ 해는 지고오~~~

월출 동녘에 달이 솟네~~~

어~~~ 어~~~ 아~ 어~~~ 어어~  
에~~~ 에~ 에라 삼어~~~ 디오~

오동추야~~~ 달은 밝은데~~~

임의 생각이 절로 난다~ 에~~~

어~~~ 어~~~ 아~ 어~~~ 어어~  
에~~~ 에~ 에라 삼어~~~ 디오~

일본 대판이~ 얼마나 좋아서~

꽃같은 나를 두고 연락선을 타느뇨~ 에~  
어~~~ 어~~~ 아~ 어~~~ 어어~  
에~~~ 에~ 에라 삼어~~~ 디오~

그만저만~ 행복하고~~~

어화~ 소리로 넘어 가세~ 에~

어~~~ 어~~~ 아~ 어~~~ 어어~  
에~~~ 에~ 에라 삼어~~~ 디오~

(잦은 중모리)

어화 어화~ 상사디오~

어화 어화~ 상사디오~

상사~ 소리 나거들랑

어화 어화~ 상사디오~

서삭서삭 힘을 내세

어화 어화~ 상사디오~

이팔 청춘 소년들아~

어화 어화~ 상사디오~

백발 보~고 웃지를 마라

어화 어화~ 상사디오~

워렬~렬렬 상사디오

워렬~~~ 렬~ ~ ~ 워렬~ 삼~~~사디오

### <논매기 소리>

류진영 : 논매기 소리는 세 가지가

있어. 처음 내는 소리, 중간에 하는 소리, 끄트머리 하는 소리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어. 어정내는 것도 있는 테 어정온통…

(가곡이나 시조에 통하는 긴 장단)

노자노자~~ 짊어 노자

늙어 지~면 못 노~~~나니

아~~~ 이~~~ 애~~~ 야~~~ 아

아아~아이아아~아이

일락 서산~ 해는 지고~

월출~동~녁 달 솟~는다

아~~~ 이~~~ 애~~~ 아~~~ 아

아아~ 아이 아아~ 아이

류진영 : 처음부터 중간까지 하는 소리여. 멀리서 들어도 어디쯤 매는 지 알 수 있어. 중간쯤에서 '잇(異)가락'을 혀.

아아 아이아이 에이~ 에이~~

아아 아이아이 에이~ 에이~~

('정선 아리랑'의 '엮음 아리랑'에서처럼 사설을 마구 엮어 나감)

어허어어~ 향단아 예~

도련님이 가신 단다이별주를 갖추어 라풋걸

절이고 추김치문어 젖국걸드리고

향단일탕술상들고 춘향일탕술병들고 도련

님방으로 나오너라아아~ 아이

아아 아이아이 에이~ 에이~~

아아 아이아이 에이~ 에이~~

에헤~에에라월썩은~간장이요모진것은  
임이로다

임아임아서방임아요내가슴손넣어보게

동화같이불던물에 피골없이 말랐으니발리

기로말랐더냐우시기로말랐더냐

동지설달긴긴밤엔 임이그리워말랐네야~

아~~

아아 아이아이 에이~ 에이~~

아아 아이아이 에이~ 에이~~

에헤~에~~~하루엔~길을가니이상스러

운새가을움운다

적벽화전에 쌈싸우다죽은군사원조라는새

가되어

동국을바라보며 슬피슬피우는구나아아~

~ 아이

아아 아이아이 에이~ 에이~~

아아 아이아이 에이~ 에이~~

주민들 : 아이고 너무 슬프게 헌께  
눈물이 다 나오네 그려.

류진영 : 이 소리만 잘하면 말이오.  
오면 가면하는 행인들이 우두머니 서  
서 바라봐요.

주민들 : 재담 소리여 그게. 재담  
이 구성지니까 발을 멈추고 듣는 거  
여.

### <바심 소리>

류진영 : 몇 번 치느냐 하면 12번  
쳐야 허니께.

(7~8장단으로 12번 치는 것 같음.)

주민들 : 그냥 혀.

류진영 : '혜'하면 '혜'해야 혀. 요것  
'바심 소리'여

조사자 : '타작 노래'입니까?

주민들 : 그려 '타작 노래'여.

류진영 : (벗단이) '왔나'하며 때리

면, 저쪽도 '왔다'하고, 이쪽 사람이  
'아해'하면, 저쪽도 '아해'하는 거여.

(타령 혹은 중중모리 장단. 한 장단 안에  
앞소리와 뒷소리가 완결됨.)

아해 <아해> 오늘 저녁 <아해>  
여기서 놀고 <아해> 내일 저녁 <아해>  
어디가 노나 아해~야 어허이~ 어허  
어디여

어디여나~해~

류진영 : 그러면 (벗단이) 나가는 거고.

왔나? <왔네!> 아해 <아해>

이팔 청춘 <아해> 청년들아 <아해>  
백발보고 <아해> 웃드를 마라 아해~야  
어허이~ 어허 어디여나~ 해~  
왔나? <왔네!> 아해 <아해>  
어떤 사람은 <아해> 팔자가 좋아서 <아해>

기생 데리고 출다 아해~야 어허~ 어허  
어디여나 아~아~

### <도리깨질 소리>

주민들 : 자진모리 장단여. '아주까  
리 정자는 구정잔데 살구나무 정자는  
신정잘세'하며 장단과 동작이 맞아들  
어 가는 거여.

(자진 모리)

어허~어야 어야어 어야해

이팔 청춘 청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를  
마라

어허~어야 어야어 어야해

앞동산은 청춘자요 뒷동산은 푸를 청자라

어허~어야 어야어 어야해

높은 산 상상봉에 홀로 솟은 소나무는

어허~어야 어야어 어야해

주민들1 : 어떻게 들으면 '상여 소  
리' 비슷혀.

주민들2 : 현실로 해 가면서 해야  
장단이 노래에 맞어. 도리깨를 돌리  
고 치는 것이 이 노래에 맞어. 동작을  
안 하면 그 노래가 그 노래 같애. 박  
자는 한 가지여.

류진영 : '집터 다지는 소리'가 있  
어. 요즘은 포크레인으로 하기도 하  
지만 말여. 편편하게 흙을 모아 놓고  
아름들이 둘을 동아줄로 묶어서 한  
삼십 명 달라 드는데, 소리를 매겨야  
그 둘이 올라가. '여여라 사이'하면  
번쩍 들거든 '쿵쿵 놓시다'하면 쿵쿵  
놓거든.

주민들 : 그 소리도 한 번 해 봐.

조사자 : 그 소리는 조금 있다가  
듣고요. 이 때까지 <모심기 노래>부  
터 <바심 소리>까지 해 왔거든요.  
이제는 거두어 들인 곡식을 바라보며  
뿌듯한 마음으로 즐거워 하며 부르는  
노래도 있을 것 같거든요.

### <풍년가(경기 잡가)>

(타령 혹은 중중모리 장단)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명년 하사월에 풍년이 왔~~~네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연년 방방곡곡에 풍년이 왔~~~네

천하지대풍 농사밖의 또 있느냐

시기를 알았으니 농사에 힘을 쓰소

지화자 좋~다 얼~씨구 좀도 좋네  
연년 청산보기로 화전 놀이를 가잔다  
주민들 : 좋다! 어떤 양반이 저렇  
게 소리가 잘 나오겄소.

류진영 : 나 좋죠? 나이는 먹었어도  
조사자 : 대단하십니다. 민요로 무  
형 문화재로 지정된 분들의 소리도  
조금 들어 봤는데, 그에 밀지지 않습  
니다.

(손태도는 이후 민속 음악 담당 문화재  
전문 위원이신 이보형 선생님께 조사한 녹음  
테이프를 들려 드리고, 그분을 모시고 동년  
8월 1일 류진영씨의 소리에 대해 2차 조사  
를 했다. 가곡이나 시조에 통하는 느린 장단  
으로 불리는 농가는 제일 먼저 사라지게 되  
는 소리들이다.)

#### 마. 청양군 정산면·목면 일대(5조)

##### <심봉사>

[구 연 자] 이길상(여, 71세)  
[구연장소] 정산면 서정리 윤홍수씨  
댁(연세당 한약방)  
[구연일시] 1995. 4. 26(수) 오후.  
[조 사 자] 임주택, 최현재, 장유정,  
김영실, 이은주, 이영옥.

내동 아들 한 가정에 그의 식구 세 사람  
눈먼 병신 심봉사가 간난 딸을 안고서  
이집 저집 다니면서 구걸 젓을 먹였다  
(이길상씨는 굉장히 긴 노래인데 교회 찬  
송가를 배우며 잊어버렸다고 하고, 한약방

주인 윤홍수씨는 이 노래가 1910년대에 만  
들어진 노래라 부연했다.)

##### <소금장수>

[구 연 자] 이석자(여, 51세)

[구연장소] 정산면 서정리 이석자씨 댁

[구연일시] 1995. 4. 26(수) 밤.

[조 사 자] 임주택, 최현재, 장유정,  
김영실, 이은주, 이영옥.

옛날에요, 소금장수가 소금을 팔러 갔는  
데 소금을 팔러 확 가다가 보니까 날이 해  
가 이미 어두운 거여요. 어두워 가지고 옛  
날엔 집들이 없잖아요. 산넘고 산넘어 또  
한 집씩 밖에는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소  
금을 팔고서 막 집을 갈라고 보니까 이제  
컸工委한 산을 넘고 또 넘고 보니까 여기 반  
짝반짝 불빛이 하나 있드래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 자구 갈려고 자  
구서 갈려고. 그래서 집양반 집양반 찾으  
니까 하얀 할머니가 나오드래요.

그래서 잘 데 좀 없나고 그러니까 자고  
가라고 그러드래요. 소금짐을 내려다 놓고  
자는데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밥을 해다 준  
다고 그러드래요. 그 할머니가 그래 가지고  
밥을 달라고 해서 있다 보니까 밥해 왔  
다고 해서 딱 보니까 밥사발에 사립 손가  
락 발가락으로 밥을 해다 한 사발 해 왔드  
래요.

무서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무서워서  
발발 떨다보니 이제 도망을 가야할텐데 같  
수가 없네. 근데 할머니거든요. 굽께 그 발

가락과 손가락을 도망갈려고 함께 그 할머니가 눈치를 딱 채고서 탁탁 재주를 세 번 딱 넘으니까 여우드래요. 꼬리가 그냥 한 오십 개 달은 여우, 그래 가지고 이이가 막 도망을 막 가는데 굴러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막 팔팔 美아다 보니엔 없어진 거라요, 할머니가. 어쩌다 보니께 막 도망오다본께 하얀 겨란이 앞으로 찍 굴러 가드래요. 겨란이 그래도 뭐 생 각지도 않고 도망을 가다 본께 또 겨란이 데굴데굴 구르더래요. 그 여우로 딱 변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소금장수가요 굴러서 굴러서 가다 보니까 강물로 빠져서 죽었대요.

(구연자는 이 이야기를 홍성군 구암면 친정 할머니한테서 40년 전 쯤에 들었다고 했다.)

### <말하는 남생이>

옛날에요. 한동네에서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가 살았대요. 그러는데 가난한 사람은 혼자고 부자는 볼호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항상 눈이 오나비가 오나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아야 인자 먹고 사는 거여요. 그러는데 눈이 펑펑 오는거예요.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래 가지고 산에서 인자 나무를 하면서 인제설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막 내다 팔아 야지 명절 설을 새잖아요. 그런디 아우 눈은 오지 그냥 나무를 할 수가 없지 눈이 쌓여서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설눈은 쌓고 설밥은 없고 죽은 아버지

제살랑 관두고 산 엄마는 어떡하나?”

그 말을 계속 한거여.

“죽은 애비 제사는 관두고 산 엄만 어쩌나?”

그렇게 하니까 옆에서 뭐가 따라서 하는 거여. “설눈은 쌓고 설밥은 없고 죽은 애비 제살랑 관두고 산 엄만 어떡하나?”

계속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데를 간 거예요. 한참 찾아 가서 본께 남생이가 지금 거북이라 그러는 거 그것 보고 그거이 말을 하는 거여요.

그래서 막 가서 둠복 안고 왔어요. 집에 를 와가지고 나무도 안고 집에 를 와 가지 고서 중멀 집에 갖다 놓고도 말을 다 따라 허네.

그래 가지고 가지고 돈 벌려 간거예요. 어느 큰 네거리로 가 가지고,

“말하는 남생이 사시오! 말하는 남생이 사시오!”

하고.

그래 갖고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본께 중말 말을 잘 하는거야. 이게 중말 말을 잘하니까 인자 막 지금 우리 째지면 만원 준다 십만원 준다 백만원 준다 그냥 막 경매가 불지 불여지는거지. 그래 가지고 큰 돈을 막 한 천만 원 받고 팔았대요.

### <역동할아버지 이야기>

[구연자] 우제국(남, 73세)

[구연장소] 목면 지곡리 우제국씨 댁

[구연일시] 1995. 4. 27(목) 오전.

[조사자] 임주탁, 최현재, 장유정,  
김영실, 이은주, 이영옥.

역동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설도 좀 있고 책자도 좀 있구.

그런데 거기에 중국의 사신을 우리 역동 할아버지가 가셨는데, 역동이라는 그 임금이 호를 주신 것은 주역을 동쪽으로 가겠다는 것을, 그래서 주역의 역자 빼고 동쪽이라는 동자 빼고 역동이라 했건데, 그 사실이 어찌 그리 높는고 하니.

중국의 사신을 가셨는데, 물론 국사를 가서겠지. 가셨는데, 대관, 말하자면 지금으로 장관이라 할까, 그 집에서 유숙하게 됐더래. 중국 가서, 사신으로 가지고, 이제 거 가서 저녁에 이숙한데 그 주인이 책자를 하나 내놓으면서 근데 그 주역이 중국의 그 원판이니 좋은 책이닝께, 이것을 백성들에게 널리 가르치다가서 그 주역을 배운 사람들이 기만히 보니까는 보통이 아니거든, 까닭하다가 이게 역적이 날 그럴 우려성이 있단 말이여. 주역을 배운 분들이 그러니까 주역을 금해서요, 못 읽게요, 중국서 주역을 금했는데, 대신네 집에서는 그 주역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책을 역동 할아버지께 주더라는 게요. 이 책 봤냐고.

그래 보니까 안 본 책이거든.

그래 그 주역을 몇 권이나 봤는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초저녁부터 다 본기여. 참 이 양반이 그 숨어있는 그 진미가 모여있고 아주 앞으로 문화적인 꼭 배움직한 책

이니까 열심히 골똘해서 봤다 말이야. 그 래 가지구 아주 한 번 쪽 보시면서 암기를 한기여.

새벽에, 그 읽는 것을 금하니까 새벽에 달라고 그럴 거 아냐. 그때마짱 주역이 있으면 말짱 태울 그런 그 명령이 내려었는데, 그 이제 다 봤나고 해서 거진 봤다고 싸간 것을 갖다 두더라는 거여.

근데 그 역동 할아버지가 국사 일을, 불일 다 보시고선 오시는데 물론, 지금도 많이 외국 사람들을 출입하는데 그 검문을 많이 하지마는 그 때도 검문을 세게 하더라 는거여. 그래 그 검문을, 다 수색을 하구서 가시는디, 뒷모습이 훤히 비치더라는거여, 서기가 나더라는거여. 그개 그 감시하던 분들이 저 사신 좀 잠깐 오셔달라고. 암만 수색을 해도 없거든,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또 가시라고 해서 나오시는데 또 수색을 하더라는거여. 그러니까 이 그 검사하던 분들이 자기 조정으로 가서 얘기를 한거여. 조선 사신이 가시는데에 이상하단 말이여. 아무 것도 가진 것은 없는데 서기를 하니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금했어요. 오시는 것을 금해가지구, 조정에서 나와 가지구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니 아무 것도 없거든.

그래 할 수 없단 말이여. 가시게 할 수 밖에 없다고. 그래 오시는데, 그 주역을 우리의 옷저고리에 숨겨 놨더라는거여. 그래 가지구 한국에 와가지구 친필로 다 썼어요. 암기해 놓은 것을. 그래서 주역이란 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역동이라는 호를 지어서 가지고 역동선생, 타성에서도 역동선생이라면 알지요.

(이 이야기는 원수지간인 정도전의 자손에게서 들은 이야기라는 말을 덧붙였다.)

### <창부타령>

[구연자] 임도준(남, 83세)

[구연장소] 정산면 서정리  
정산노인회관

[구연일시] 1995. 4. 27(목) 오전.

[조사자] 임주탁, 최현재, 장유정,  
김영실, 이은주, 이영옥.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갈까보다 말까보다 임을 따라서 갈까부다  
따라가면 연분인데 두고 가며는 상사로다  
상사가 되여곤나 몸이 죽어서는 난 나  
비되어  
이 몸이 화초발 위로 오락가락 할까 보다  
얼씨구나 좋네 지화자 좋아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 <호랑이 꼬리가 길어진 이야기>

[구연자] 강태석(남, 87세)

[구연장소] 상동

[구연일시] 상동  
[조사자] 임주탁, 최현재, 장유정,  
김영실, 이은주, 이영옥.

내가 얘기 한마디 하지.

이전 말하자면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

절이라고 하잖아. 호랭이가 담배를 먹고 하는 것인지 물르는디. 그 전에 한 사람이 산말랑이에다 참말로 구덩이를 파 놓고 짐승을 빠지면 잡고 잡고 하는디, 근데 거기다가 구덩이를 파 놓고서 며칠만에 가보니까, 그전에 대호라는 호랭이가 참말로 거기가 쑥 빠졌어. 그래 며칠 굽었으니 배아리가 고파 죽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쑥을라가니께 호랑이가 하는 말이, 그래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에 호랭이가 담배도 먹고 말도 하거든.

“대사나리, 아! 나 좀 살려달라구.”

“그 너 살려주면 너 굽은데 날 잡아 먹을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호랑이가 하는 말이  
“어째 운혜를 안 갚고 대사님을 잡아 먹겠느냐.”

이렇게 말하거든.

“그럼 너 좀 건져줄까.”

지다란 막대기를 뚝 넣어서 했는데 그려구 쑥 나왔단 말이여. 그게 뚩 놀 때 같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여. 나올 적에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 운혜를 할려고 하는데, 우선 배아지 고픈게 그 놈부터 잡아 먹어야겠거든.

“아이구 배가 고파 환장하겠네. 배상은 뭐고, 너부터 잡아 먹어야겠다고 막 덤빈단 말이여. 그러니 그 뒤크질을 하는데 토깽이가 두 마리가 쑥 빠져 나오거든 쑥 나오는데, 호랑이가 배아지 고픈데 앞에서 한놈은 일로 가구 한놈은 절로 가는디, 배

는 고품데 어떻게 날라오는데, 이놈 잡아 먹을까 저놈 잡아 먹을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대사놈은 도망질러버렸으니, 그러니 토크이가 가만히 생각한데 글게는 그놈 아한테 맞아 죽게 생겼거든.

“호랭이 아저씨, 토크이도 말이 있거든. 호랭이 아저씨, 그 시장한다 우리 잡아 먹으면 요기나 되겠수. 저기 가면 큰 명렁구리 하니 있으니까 그놈 잡아 먹으면 호랭이 아저씨도 배가 빨록 할거요.”

아 눈이 번쩍 띄거든.

“거 어디냐”

고 하니까,

그 때는 직금이 그렇지 그전에는 당나귀가 있어, 당나귀가. 당나귀라는 게 오래 먹이면 타도 못하고 소용없이 먹기만 잘 하거든. 그 소용없으니까 저 산골郎에 따뜻한 곳에다 짓밟고 온다 말이여. 그래 그 놈이 뜯어먹고 난 뒤 토크이가 그걸 보고서는 꼩지를 이렇게 마주 매구는, 토크이 꼬리를 쥐고, 호랭이 꼬리를 쥐고서는 마지막에 가보니까 큰 명렁구리가 있거든.

호랭이가 가만 생각하니 느닷없이 잡아 먹었으면 하는디, 가만히 보니까 어째 뒷 어리도 크고 가만히 보니까 너 눈이 엄청 하거든. 당나귀가 연장에 뒤령뒤령 매달렸거든.

“너 눈이 왜 울멍하나.”

“멀리 있는 소리 들으려고 그런다.”

“그럼 너 발때기에 뒤령뒤령은 뭐나.”

“이거 대포다”,

그리고 있단 말이여.

가만히 보니까 대포 터지면 죽게 생겼거든. 호랭이가 자기 어떻게 터지라고 우선 쳐다 보니까 아 그것이 커다라지거던. 다짜고짜 치명하고 소리지느니께 대포 터지는 바램이니, 호랭이는 이미 강원도 금강산으로 쑥 들어가 버렸거든. 그 토크이 꼬리가 뚝 잘라서 호랭이 꼬리로 불어서 갔구. 호랭이가 꼬리가 이만해. 그게 얘기여.

### <술 잘 먹는 남씨 이야기>

[구연자] 백병기(남, 77세)

[구연장소] 상동

[구연일시] 상동

[조사자] 임주택, 최현재, 장유정,  
김영실, 이은주, 이영옥.

이조 때 술 제일 잘 먹는다는 분이 세 분 있었어. 그럼 얼마나 잘 먹어서 제일 잘 먹느냐. 김씨 한 분이 글이 천하문장이야. 그 분이 중인인데 글짓기를 좋아해서 밤새도록 글을 짓는거여. 대감들도 그 아무개한테 글을 받으면 그게 자랑이 되는 거야.

하루는 정승판서 자제들이 하는 말이,

“야, 아무개가 글 잘하고 하니까 언제 노는 날 같이 하루 놀자.”

노는데 자기네들끼리 술을 두 동이를 해가지고 갔어. 그 사람이 술을 잘 하니까 한 동이는 먹을 거고 모인 사람끼리 한 동이는 먹자고. 아 이 분은 운만 대면 금방 글을 쳐버려. 자기네는 대 맞춘다. 뭐한다 하루 몇 시간씩이 걸린다 이기여.

아 이 사람이 글 쳐놓고 할 일이 있어야지. 가보니까 술이 두 동이가 있거든. 그래서 거뜬히 한 동이를 먹어버렸어. 먹고 보니까 안주가 없거든. 그래서 또 한 동이를 먹어버렸어. 아 이놈들이 인제 글 다 쳐놓고 와 보니까 술 두 동이를 다 먹고 자빠져 잔다 이기여. 그 사람이 깨니까,

“야, 임마 너 한 동이 먹고 우리 한 동이 먹을랬더니 어찌 너 혼자 다 먹었니?”

하니까 이 사람이,

“아 이놈아 술을 먹고 나니까 안주가 있어야지. 안주 삼아서 한 동이 더 먹었다.”

또 하나, 남씨 남관사야. 이 분도 글 잘하고 술도 잘 자서. 그 분도 역시 어디 가서 글만 썼다 하면 하루 밤이고 언제고 그 운만 가지고 글을 쓰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글을 모두 칭찬을 해. 그래 정승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저녁에 글을 받고 가만 그 사람은 다른 거 줘야 그렇고 술을 줘야 좋다고 해니까, 술을 서 말을 해서 갈 적에 하인을 시켜서 그 서 말 단지를 들여 보냈어. 아 이 하인 놈이 술 서 말 단지를 들고 꿩거리니까 남씨가

“그게 뭐냐?”

“술이요.”

“술이여? 그럼 거기다 바쳐 놔.”

아 이놈이 길을 갈 동안 퍼먹고 또 퍼먹고 집에 가니까 술 세 말이 하나도 없다 이기여. 그게 둘째여.

또 하나, 영조 대왕 때 술 잘 먹는 분. 그 분도 남씨여. 남씨가 옛날에 그렇게 글을 잘 했나봐. 영조 대왕이 과거를 보는디

상시관을 꼭 그 사람을 써야 되겄는디 술을 그렇게 좋아해. 술 먹고 실수한단 말여. 그 시험장에 가서 실수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왕이, “경이 내일 상시관을 해야겄는디 내일 을 때 술 한 잔만 먹고 와.”

한 잔도 먹고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부탁을 했다 이기여. 아 근디 글을 끊고 있는데 방바닥을 뚜들기고 무르팍을 치고 그런단 말여. 한 잔 먹어서는 그렇게 안 되는데 어지간히 취한 거야. 그래도 그 날 일을 다 했어. 영조 대왕이 자기가 부탁한 것도 있는데 너무 술에 취했다 이기여.

“아 그대가 일은 잘 했는디 내가 부탁을 매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 어명이 하도 중해서 을 때 동이에다 술 한 잔 밖에 안 하고 왔습니다.”

그러드라.

(구연자는 옛날 이야기를 거짓말로 인식하고 있었다.)

## 시조1

태산이 높다해도 하늘 아래 외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운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외리를 높다

## 잡가

이팔 청춘 소촌들 이내 말을 들어보소  
어제에 청춘 오날 백발 그 아니 가려는가  
못먹을 건 나이로다 요순우탕 문무주호  
공맹 안증 정주자도 성덕 없어 봉어하

**시며**

진시왕 한무제는 악이 없어 죽었으니  
허태왕 연저이는 의공으로 죽었으라  
말 잘하던 소진장도 열국대왕을 달랬건  
만 염라대왕은 못달래고  
춘풍세우 중에 적막도 대단  
(구연자는 이 노래를 사설시조라 하였다.)

**시조2**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운디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감이

**동요·민요·설화**

[구연자] 이계월(여, 64세)

[구연장소] 정산면 서정리 김순지씨  
댁

[구연일시] 1995. 4. 27(목).

[조사자] 임주탁, 최현재, 장유정,  
김영실, 이은주, 이영옥.

**동요1**

얼래 멀래 허멀래 까치 새끼 정월래  
비래 꼭지 매방을 천지같은 말을 타고  
고개 고개 넘어가  
까치동아 문열어라 천지동아 문 열어라  
고개 고개 넘어간다  
(구연자는 이 노래가 어릴 때 아이들이  
놀이할 때 부르는 동요라고 부연하고, 다음  
설명과 함께 동요를 한 편 더 구연해 주었다.)  
그러구 옛날에는 옷을 여자들이  
밀이 타진 걸 입었거든, 가래바지라

구. 여(사타구니를 가리키며)가 타진  
걸. 그렇게 입구서 인제 바지만 입구  
서는 헌단니게. 이렇게 하는 거여.

**동요2**

아당이 따님이 땅바지 원양이 실상이  
파묻힌다  
쪼꼬만한 다리미로 실쪽달쪽 다리서나  
온장같은 드는 칼로 옥으로 쪽으로 채  
서  
(구연자는 이 노래가 매우 긴 것이지만  
자신은 여기까지만 기억한다고 했다.)

**동요3**

인사만사 두만사 짹바위 세운 게  
주머디게 잔술발 모기발에 쿠사리  
칠풀 구자리 동지설달 대자리  
(구연자는 이 노래가 매우 긴 것이지만  
자신은 여기까지만 기억한다고 했다.)

**민요1**

아주끼리 선천 후에 해가 저물어  
멀리 타향 부두마다 등불을 켜며  
진성냥 찾아가는 짚은 뱃사공 어서 가자  
내 고향 어서 가자 내 고향 아주끼리  
(구연자는 이 노래가 매우 긴 것이지만  
자신은 여기까지만 기억한다고 했다. 그리고  
진성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  
다.)

통나무를 대패로 밀어서 길쭉한  
나무개비를 만들어, 그 끝에다 황을  
묻혀서 쓰던 걸 진성냥이라고 했어!

### <베틀노래>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 많 어라

낮에 짜는 건 월광단이요 밤에 짜는 건 일광단이라

월광단 일광단 다 짜가지고 이네 낭군님  
(구연자는 여기까지만 기억했다.)

### <석탄가>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는 벼벽 나는데  
요내 가슴 타는데는 연기도 짐도 아니  
나네.

에해야 에해야 에여라 난다 지화자 좋다  
허송세월아 말어라.

임오실 때는 되었는데 웬 수능에 비바람  
에해야 에해야 어여라 난다 지화자  
허송세월아 말어라.

### 민요2

해는 지구 저문 날에 옷갓을 하고 어데  
로 가오

첩의 집에 가실라면 나의 목숨을 끊고  
나 가오

첩의 집은 꽃밭이요 나의 집은 연못이라  
꽃과 나비는 한때련마는 물과 고기는  
사시상철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  
는 옷하리리

### 민요3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명년 춘삼월에 화전놀이를 가자

작년같은 풍년에도 장가를 못갔네

올같은 백세 풍년에 장가를 못갔네

어혀라 난다야 어혀라 난다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금년같은 풍년에도 장가를 못갔네

올같은 새악시 풍년에 장가를 못갔네

어혀라

(구연자는 여기까지만 기억했다. 온천하게 기억하는 노래가 없어 다소 멋쩍은 표정을 하다 다음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 <친구 이야기>

내가 옛날 얘기 하나 해 줄까.

옛날에 참 친한 친구가, 죽기 살기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네는 참 잘 살아. 그런데 또 한 친구가 그 친구를 자기네 집에 초대했는데 그 친구네는 아주 그렇게 가난하더래. 아주 가난해서 개가 내려갈 때도 엉덩이가 걸쳐서 못 내려갈 정도로 빚어지도록 가난하더래.

그런데 친구를 방안에 떡하니 앉혀놓고는,

“마누라, 마누라”.

불르더니 나오지도 않고 방에서 고기 좀 지지고 생선도 구워서 밥을 지어오라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마누라는 환장하겠지.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런 걸 해오라고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누가 화장실에 가더래. 그 사람이 남편인 줄 알고 성질이

나서,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알아들으니까 큰 장대로 갖다 화장실 안 쪽을 푹 찌르면서 어디에 쓸이 있어서 밥 내노라 뭐 해내라 그러냐고, 막 져서가며 그러니까 손님이 변소 안에서 실컷 당했다. 실컷 당하고는 방으로 왔어. 마누라는 안에서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아이구 아까 남편이 아니었나 보다.

신라잉 이번에는 변소에 갖는데 방에 대고 그랬다네. 그러니까 맨날 손님만 당한거. 손님이 가만히 당한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밥 먹을 수가 없잖여. 그래서 나 간다 하고 나섰어.

집으로 왔는데 친한 친구가 그렇게 사는 줄 몰랐잖아. 그러니까 집에 와서 재산을 떼주고 잘 살게 해줬대요.

이거 얼마나 좋아.

### <복많은 사람 이야기>

[구연자] 이계실(여, 64세)

[구연장소] 상동

[구연일시] 상동

[조사자] 임주택, 최현재, 장유정,

김영실, 이은주, 이영옥.

옛날에는 나이 서른을 먹으면 무지하게 나이먹은 총각이라고 했거든. 그런디 한 남자가 나이가 서른을 먹도록 장가를 못 갖는디 고민이 되는디 사는 게 집이 어렵더라. 그런디 한번은 보는 사람한테 가서 보니까 당신은 아들 육 형제가 뚜렷이 섰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나이가 서른을 넘도록 장가도 못 갖는디 아들 육 형제가 어디서 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아들 육 형제가 됐으면 장가도 가고 그런거지, 마누라도 뚜렷하게 있네.”

그러더라.

아 그래 자꾸 어찌개 어찌개 하다 세월이 가다보니까 장가를 갖는디 아들 셋을 낳았는디 먹을 게 없어서 무진장 가난한 거야.

그래서 마누라가 얄어먹고 사는디 애들이 크니까 도무지 얄어먹는 것으로는 살수가 없으니까 남자가 돈을 벌어온다고 나갔어. 나갔는디 어디로 가서 가보니까 그 집이 잘 살더라. 그래서 그 집이서 머슴이라도 살아서 세경이라도 받아서 집이 어린 자식들이라도 먹일려고 거기를 찾아갔다. 그 집이 가니까 노인네들이 사는데 부자드라.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자네 우리 집에서 머슴을 살게 그러더라. 그래서 세경은 얼마 줄 거냐고 하니까 세경은 일만 잘 하고 내 말만 잘 들으면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그러더라.

아 그래서 그 집이 들어가니까 두 노인네만 있는 게 아니고 시퍼런 마누라 셋이 있더라. 그런디 알고 보니깐 재산이 많으니까 마누라를 얻고 또 얻고 해서 큰 마누라는 젓혀놓고 마누라가 셋이더라. 남자는 놀았는디. 그랬는디 바깥 영감이 하루 저녁에는 잘 먹여주고 웃도 잘 일해주고 아주 목욕도 시켜주고는 사실 얘기를 물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어린애들을 먹여 살릴라고 이렇게 왔다고 사정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걱정 말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부자로 맹글어 줄 수 있다고. 돈만 주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랬는디.

하루는 그 노인네가 부르더라. 얹으라고 그러더니 술을 한상 봐서 건네주더니 시방 우리 집이 마누라가 셋이다. 얹고 또 얹고 해서 마누라가 셋인디…… 집에서 살다 보니까 바깥에 담을 거짓말 보태고 해서 뻥 담거리가 심리는 되더라. 철벽같은 담에 물 한 방울 샐 데가 없더라. 그런디 그 노인네가 너가 오늘 저녁에는 몇째 방에 가서 자고 또 내일 저녁에는 몇째 방에 가서 자고 그 다음 날에는 몇 째 방에 가서 자라 그러더라.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일도 아니거든. 돈도 준다고 하고 뭐 마누라까지 주니까 남자는 좋지. 그래서 첫번째 방에 갔는디 아무 소리도 없더니 두번째 마누라도 그렇고 세째 방 끄트머리에 갔더니 그 여자가 깨더라. 깨서 종이 폭지를 주면서 당신이 요 시간에 비끼면 당신 생명이 위험하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당신이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어티케 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여기 어디어디 가면 담 밑에 수채 구멍이 있으니까 돈을 주면서 그리로 빠져 나가라고 그러더라. 그럼 언젠가는 당신을 찾을 때가 있을테니까 나가라고. 그래서 그 놈을 가지고 빠져 나와서 집으로 왔대요.

집에 와보니까 영감은 안 오지,

애들은 먹을 건 없지 해서 집안이 엄망이 됐드라. 부인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까 그런 얘기를 다 못했든 모양이여. 알고 보니까 그 주인네가 얘기를 못 낳는거야. 그래서 소문을 퍼뜨려서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한 거야. 그런디 그 셋이 다 애가 드러섰드라. 배들이 다 똑같이 불러오니까 저희들끼리 회의를 해서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 이 여자들은 뱃속에 있는 애 아버지니까 죽일 수는 없고 살릴려고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주인이 찾더래는거. 찾는다 모르겠다고 했지. 그 애들이 다 커서 재산이 많으니까 다 공부를 가르치고 했는디 그새 중간에 그 남자는 어렵게 산겨.

근디 어느날 그 가난한 집 마누라가 저녁 때 바깥쪽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흘룡한 선비들 셋이 말을 타고서 자기네 마을을 향해서 오더라. 그 부인이 에 어떤 사람은 복이 많아서 저렇게 잘 살고 말을 타고 사는디…… 하면서 그게 부러워서 신세한탄을 하는디 점점 자기네 집으로 오더라는거. 그 말 뒤다가는 자기 어머니를 실고 오는거. 그 집이 와서는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디 내가 그때 태기가 있어서 나서는 이렇게 캤다 하더라. 그리고는 바깥노인은 죽어서 셋이 재산을 나누어서 이 집을 살린거야. 그래서 아들 육형제를 다 살린거야.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둑 떨어지게 잘 본거지. 그래서 그 동네에서 최고 잘 살더래. (구연자는 이 이야기를 시집 오기 전 홍성에서 들었다고 했다.)

## <작가>

[구연자] 안정로(남, 75세)  
[구연장소] 정산면 송학리 안정로씨 댁  
[구연일시] 1995. 4. 27(목) 오후.  
[조사자] 임주택, 최현재, 장유정,  
김영실, 이은주, 이영옥.

산척척 춘부이로되 높고 낮음을 알리련만  
허랑망 칠리를 내도 집고 알음을 알리마는  
사람의 모술 쑥쑥 펴이야 알 길이 없네.

<미요·설화>

[구연자] 이정순(여, 75세)  
[구연장소] 정산면 서정 2리 이계월  
할머니택  
[구연일시] 1995. 4. 28(금) 오전.  
[조사자] 임주탁, 최현재, 장유정,  
김영실, 이은주, 이영옥.

〈연장수 노래〉

종로 네거리 해가 저물어  
바람이나 불면 구름 하나 끌고 찬찬히  
가자  
시골에 엿장사 할아버지는 날이면 날마  
다 엿이나 잘 팔고,  
이웃집 새악시야 너무지 마라  
바람이나 불면 구름 하나 끌고 천천히  
가자

<제작 노래>

벼를을 노세 벼를을 노세 한늘 위에다

벼름을 놓

낮에 짜면 일광단이요 밤에 짜면 월광  
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삿가 가지고 정든 님 덧  
저고리 삼겨줄까  
한단을 따서 깃을 달고 무지개 따서 동  
정달이  
(구연자는 이 노래가 매우 긴 것이지만  
자신은 여기까지만 기억한다고 했다.)

〈부천시 노래〉

동네 사람 : 부처님 뚱구녀은 뭐하  
는 거 해봐.  
구연자 : 부처님 뚱구녀엔 향만 들  
었지 뭐.  
덩더러쿵 덩더러쿵 칠사님 방아 언제나  
다 짹고 밤마실 같까  
영감아 땡감아 골나지 마소 방아풀 팔  
아서 조개떡 짹게

〈시집살이 노래〉

살림살이 내림살이 헐뚱말뚱  
호박넝쿨 박넝쿨은 넘실넘실  
시집살이 무덤은 친정살이  
친정살이 무덤은 화리계종사  
(구연자는 이 노래가 매우 긴 것이지만  
자신은 여기까지만 기억한다고 하고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그 예전에는 우리들이 방아를 째.  
방아질 제 내가 여기에 혹이 이만쯤  
하게 달렸옹께근데 그제 인제 없어졌  
어 밤아찌는 게 얼마나 힘들어 도리

방아 물방아 찧면서 혼자 흥타령이  
여.

### <게 장수 이야기>

그이 잡으러 가 볼까? 옛날 스님이 절  
에 가서 중노릇을 하다가 못 하겠어. 그래  
서 절을 나와서 뭐 벌어먹고 살래니께 벌  
어먹고 살 게 있어야지. 그래서 게 장사를  
하는거. 장사를 하는디 생전 중이 안 해보  
다가 할래니까 고삿고삿 짚어지고 다니면  
서,

“게 사시오, 게 사시오.”

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떤 부잣집에서  
부르거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게 있어?”

“예, 게 사시오.”

그래도 부처님 덕분에 천수를 해서 하  
나 둘 세는 게 아니라,

“일세 동방 결도랑 삼세 서방은 구정토

사세 꽃방은 연안각 도량청정은 무하야“  
아 이렇게 계를 세는데 게가 다 도망가  
거든,

“너는 전상에 무슨 복을 지어 열두 발을  
도쳐가지고 여분뱅이로 방금방금 잘도 간  
다”

아, 한참 주서답다 보니까 대청에서는  
대감님하고 대감님 마누라님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거든. 달래는 대로 주긴 더 줬어.  
그 대감님이

“게 남았니?”

“예, 남았습니다.”

“아 또 그 소리 들을라고?”

하니까 중이 또 그렇게 노래를 하거든.  
그래서 계를 다 팔고서 이 중이 나와가지  
고 아 그래도 오늘 내거 부처님 밑에 가  
있어서 이 천수 외는 바람에 우리 대감님  
들이 계를 다 사줬으니까 이제는 게 장사  
그만 하고 절로 도로 가봐야겠다 하더라.

## 문헌반 학술답사 보고서

### 1. 답사 지역 및 참가 인원

문헌반은 1995. 4. 25(화)부터 4.

28(금)까지 3박 4일 동안 경상북도 안동시 일대에서 답사 활동을 하였다. 이번 답사의 주목적은 안동 일대에 남아 있는 서원, 문헌들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특히, 서애 유성룡과 학봉 김성일에 관한 문헌 및 구전 자료들을 확인하는 것을 사전에 답사의 중점으로 삼았다. 그 외에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안동 일대 각 가문의 서고를 통해 보고되지 않은 문헌이 있는지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출발하기 전에는 준비 작업으로 도산서원 일대의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하여 창작된 한시 등의 자료를 사전 점검하였다. 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안동대학에 미리 도움을 요청하여 현지 답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답사에 참가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데, 특별히 안동대 주승택 선생님, 이종석, 손재수 조교가 현지에서 동행하여 많은 도움을 주셨다.

\* 지도 교수 : 민병수 선생님

\* 황재문(박사과정), 구본현, 류준경, 이경하, 이정자(석사과정)

### 2. 답사 일정, 활동 내용 및 해단식

4월 25일 오전에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같은 날 오후 안동역에 도착한 일행은 안동대학 주승택 선생님 등과 역에서 만나 바로 병산서원으로 향했다. 여기서 서애 유성룡 후손들을 만나 이후의 일정에 대해 재검토 할 수 있었다. 서원 주위의 '병산'을 보고 관광지화되지 않은 서원의 형식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유물·서적은 모두 하회마을로 옮겨져 있다는 말을 듣고 하회 마을로 이동하였다. 하회마을에서는 입암고택(유성룡의 父公綽의 생가)과 永慕閣(유성룡 기념관)을 들러 보았으며 서적은 전시되어 있는 것 이외에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미 관광지로서 알려져 있는 곳이어서 더 이상의 조사를 할 수는 없었다. 예정된 일정에 따라 鶴峰宗宅으로 옮긴 일행은 학봉 김성일의 종손 김기인씨를 만나 기념관인 雲章閣을 살펴 보았고 여기서 『매월당시집』(필사본) 등의 서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가문과 주변 대학에서 정리 작업을 한 곳이지만 김기인씨에게서 현재까지 전해지는 임란 당시 김

성일의 행위에 대한 논란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재정리한다면 인물전설의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1시간 가량 薮章閣을 둘러본 후 주변의 봉정사 극락전(현존最古의 목조건물)을 둘러보고 안동 시내에서 숙박을 하였다.

다음날인 26일에는 광산 김씨의 문화재를 모두 이전해서 보존하고 있는 烏川君子里를 찾았다. 내부의 정자인 灌清亭에서는 한석봉 글씨를 보았고 정자에 방을 들이고 특이한 양식의 창살을 갖춘 안동 일대 고유의 정자 양식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었다. 崇遠閣(後彫堂 김부필 기념관)에서는 허목의 글씨, 신사임당 그림이 눈에 띄었는데 사임당의 그림이 안동으로 전해진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문헌으로는 『매월당집』을 확인했는데 이는 甲寅字本(선조 16년: 1583년 간행)으로 10책 23권(권 12~13은 결절)으로 되어 있어 상당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밀한 판본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이 이외에 목판본 『점필재집』(5책 23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후에는 도산서원을 둘러 보았는데 주변의 '壘巖詩碑'가 도산 서원의 유래와 관련된 자료로 남아 있었다. 원래 도산 서원 터는 농암의 땅이었다 하는데, 그 때문에 서원 주변에는 농암 이현보와 연

관된 사적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西谷(닭실)으로 옮긴 일행은 안동 권씨 權齋 權撥 종가를 방문하여 南巖亭에서 바위 위에 정자를 지은 특이한 양식을 실물로 확인하고 수진본 근사록 및 집 구조 변경과 관련된 설화를 들을 수 있었다. 여기에도 기념관이 있었으나 교지 위주로 전시되어 있어 특별한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주변의 법전 姜氏 종가에서는 후손을 만나지 못했으나 마을이 개천을 경계로 陽村, 陰村으로 구분되어 서로간에 왕래하지 않는다는 마을의 내력을 들을 수 있었다. 조선 시대의 당색이 아직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날 밤에는 춘양의 만산고택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는데, 종손인 강백기씨를 통해 안동 일대의 특이한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송시열을 惡人으로 묘사한 인물전설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 전해지는 인물전설과 당색의 관련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다.

27일에는 영주 부석사로 가서 유래에 관한 설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사전조사된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후에는 영풍군에 있는 紹修書院(안향, 안축, 안보배향)을 찾아서 퇴계한시를 비롯한 유산들이 정리되어 있는 상황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저녁에 담양으로 가서 숙박을 하였다. 다음날인 28일에는 청주를 거쳐 서울로 향했다.

이번 답사의 성과로는 안동 일대에서의 퇴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한 것을 들 수 있다. 유성룡, 김성일, 김부필 등의 후손들이 모두 퇴계의 직계라고 주장하고 있어 지역의 특수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는 주변의 인물전설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 자료적으로는 『매월당시집』(학봉종택 유물관 雲章閣 소재, 필사본)이 국내 유일본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는데, 다만 전시물인 관계로 직접적인 내용의 확인과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당색 및 역사적인 면에서의 가문 간 경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성과이다. 법전의 양촌과 음촌의 존재는 문학의 영역을 벗어난 것인지 모르지만 민속학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답사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주변의 집성촌들이 많고 유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지만, 대부분 역사학 자료 위주로 정리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군자리에서의 유물은 그 수가 많지만 주로 分財記, 교지, 입양 문서 등이 정리되어 전시되고 있고, 자료 정리와 검토 작업이 역사학계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문학적 유산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로는 인물전설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었으면 좋은 성과가 있었으리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답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답사에서는 안동대학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형태의 해당 지역 연고 대학과의 협조는 앞으로의 답사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당 지역의 서적 보존 현황과 서적 보유자에 대한 정보를 이들 대학에서 얻을 수 있어 서적을 통한 사전 조사만으로는 불충분한 준비 작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 평가와 해단식은 다른 답사 반들과 같이 하였다.

## 방언반 학술답사 보고서

고 조사된 어형들은 <부록>에 실는다. 세 지점의 제보자는 다음과 같다.

### 부안 지역어의 특징

#### 1. 들어가는 말

95 방언답사는 4.26~29일(3박4일)에 거쳐 전북 부안군에서 진행된 바 있다. 계획은 4개조로 나누어 방언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한 조가 제보자 선정에 실패해서 3개조만이 조사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조사된 부안지역어형을 통해 그 특징을 간략하게 보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

강수원 : 78세, 부안읍 내요리

이득춘 : 75세, 보안면 술항뜰

정원희 : 72세, 하서면 설못

#### 2. 음운론적 특징

##### [1] 음운체계

###### (1) 음소체계

###### ① 자음체계

이 지역어의 자음은 자음은 20개 이다. 'ㅎ'을 음소로서 인정하는 근

위치		방법	양순음	치조음	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장애음	폐쇄음	평음 경음 격음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ㅎ
	마찰음	평음 경음		ㅅ ㅆ			ㅎ
	파찰음	평음 경음 격음			ㅈ ㅉ ㅊ		
공명음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거는 정인호(1995)에 논의된 바 있다. 이들의 체계는 다음 표와 같다. 이들의 체계는 다음 표와 같다.

동화현상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김 완진 1975, 이병근 1976), 여기서는 함께 묶어 살펴보도록 한다.

## ② 모음체계

이 지역어의 모음은 모두 10개이다. 그리고 그 체계는 다음 표와 같다.

	전 설		후 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	이	위	으	우
중	애	의	어	오
저	애		아	

## ③ 반모음체계

평 순	원 순
y	w

### (2) 운소체계

이 지역어의 운소로는 음장이 있다. 아래의 예들이 음장에 의해 의미 변별이 가능한 최소 대립쌍들이다.

벌:(蜂)-벌(罰), 매:(鷹)-매(鞭), 눈:(雪)-눈(眼), 밤:(栗)-밤(夜)

### [2] 통시적 음운변화

#### (1) 구개음화와 움라우트

구개음화와 움라우트는 별종의 음운현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i역행

① 구개음화( )는 표준어형, ( )는 중세어형 )

(1) ㄱ. 지푸래기(짚), 찌트라(등-), -지(-디비)

ㄱ'. 한티(한테), 다딤이(다듬 이), 보디(바디)

cf.) 오지개(오디), 근지(그네)

ㄴ. 지등(기등), 치(키), 지미(기 미), 지집아(계집애)

ㄴ'. 기-, 기:(게)

ㄴ''. 괴옥(교육), 괴대(교대), 계 옥(계획)

ㄷ. 김성(침승), 징계(검제), 경 심(점심), 정기(<정지, 부 익)

ㄷ. 성(兄), 세(舌), 소자(효자), 솜(효험)

ㄷ'. 히-(白)

ㄷ''. 희녀(효녀)

ㄷ''. 희악(<쇠악, 쇄기))

이 지역어에서 구개음화는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1). 구 개음화는 비구개음이 '이, ㅣ' 모음 앞에서 구개음으로 되는 현상이다. 여기에는 ㄷ구개음화, ㄱ구개음화, ㅎ구개음화가 있다.

ㄷ구개음화는 다른 지역어와 비교해 특별할 것은 없다(1ㄱ). ㄱ·ㅎ구개음화는 제1음절에서만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매우 활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1ㄴ, ㄷ). ㅎ구개음화를 보이는 어형들은 두 가지 발달과정을 상정할 수 있겠다. 첫째가 'h>j' 단계이고, 다음이 'j>s' 단계이다. 여기서 구개음화란 첫번째 단계만을 가리키며, 그리고 연이어 두번째의 음운변화가 이 지역어에는 존재했던 것이다.

동화주인 '이'는 純正의 '이'에 한정되며 나중에 음운변화에 의해 형성된 '이'는 구개음화의 동화주가 될 수 없다(1ㄱ', ㄴ', ㄷ'). 다만 이 지역어에 '오지개, 근지'라는 특이한 어형이 있어 주목을 끈다. '오지개'는 표준어의 '오디'에 해당되는 것으로 중세어형이 (오듸)이다. 바로 '이'가 순정의 '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ㄷ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또 반모음 'ㅣ'가 음운변화에 의해 사라져 버릴 때에도 구개음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1ㄴ'', ㄷ''). 역사적으로 볼 때, 구개음화 현상은 y계 상향이 중모음의 단모음화 규칙과 서로 상충되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구개음화 현상을 보이는 어형들이 유난히 많다는 점이다(1ㄴ'', ㄷ'').

## ② 움라우트

- (2) ㄱ. 지푸래기, 다딤이, 원숭이(원숭이), 애끼-(아끼-), 대리-(다리-)  
ㄴ. 매끼-(맡기-), 죽이-(죽이-)

국어에서의 움라우트의 지리적 분포는 김완진(1975)의 南濃北希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남부방언에 해당하는 이 지역어는 형태소 내부에서의 움라우트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2ㄱ). 움라우트의 환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특이한 어형들은 이 지역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화주는 '이, ㅣ'이며 피동화주는 모든 후설모음이다. 그리고 개재자음은 대개 [+grave]이나 용언의 경우 'ㄹ'일 때도 가능하다. 그리고 피·사동접사 앞에서도 움라우트는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났다(2ㄴ).

형태소 경계에서도 움라우트는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이는 화자들에게 공식적 규칙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 (2) 원순모음화와 전설고모음화  
① 원순모음화

- (3) ㄱ. 풋(풋), 보디(보디), 블-(블-), 모실간다(모술)  
     ㄱ'. 말, 맑-, 마르-, 박쥐, 밝-  
     ㄴ. 불(불), 풀(풀), 분는다(붓-), 고푸-(고프-)
- (4) ㄱ. 매-{민-}, 배{비}, 피-{피-}, 미웁-{핍-}  
     ㄴ. 호무(호미), 거무(거미), 이무(이미)
- (5) 모구(모지), 무누(무늬), 종우(조희), 동오(동희), 꼬노(고누)

이 지역어에서 역사적으로 ‘으/으’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되는 어형들은 순자음아래에서 원순모음으로 변하였다(3). 먼저 제1음절의 ‘으’는 순자음 아래에서 ‘오’로 바뀌었다(3 ㄱ). 하지만 많은 어형들이 ‘으>아’의 변화과정을 경험한 것을 볼 때(3 ㄱ'), 이 지역이 남부방언(으>오)과 중부방언(으>아)의 전이지대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으’도 또한 순자음 아래에서 ‘우’로 변하였다(3 ㄴ).

다음으로 ‘으/으’에 ‘ㅣ’가 더해진 ‘이/의’의 원순모음화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위와는 달리 제1음절에서 는 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애’로 변했으며, ‘의’는 ‘이’로 변화하였다(4 ㄱ). 단, 제2음절 이하에서는 원순모음화가 일어났다. 즉 순자음 아래에서는 모두 ‘우’로 나타나는 것이다(4 ㄴ). 여기서 ‘오’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음운변화의 상대적 연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의’의 변화가 선행하고, 순자음 아래에서 ‘의>위(uy)’가 뒤따르고, 다음에 ‘ㅣ’가 탈락한 것이다.

또 하나의 원순모음화로 원순모음뒤에서의 경우가 있다(5). 이는 순자음에 의한 원순모음화와 구분하기 위해서 ‘원순성 동화’라는 용어로 설명되기도 하나 여기서는 ‘원순모음화’라는 이름하에 함께 다루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이/의’를 가졌다며 생각되는 어형들이 이 지역어에서는 ‘오/우’를 가진다. 대부분 ‘우’를 가지나 어형에 따라서는 ‘오’도 존재한다. ‘오’형은 ‘이>의’ 변화 이전에 ‘이>외(oy)’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 점이 순자음 아래에서의 경우와 약간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4 ㄴ). 하지만 모든 어형들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의’의 변화 후에 ‘의>위(uy)’ 변화과정을 거친 어형들도 있다(예.종우).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때 개개자음은 대개 [+grave] 자음이라는 것이다. [-grave] 자음의 경우는 ‘ㄴ’이 유일하다. 이러한 까닭은, [-grave] 자음일 경우, ‘의>이’라는 출혈관계의 음운변화가 이 지역어에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2) 전설고모음화

- (6) ㄱ. 소시랑(쇠스랑), 보십(보습),  
 짜리-(자르-), 고리-(고르-), 어두나 비어두나 상관없이 'ay>ε,  
 허니라고(하느라고), 씨- ay>e'의 발달과정을 거쳤다.  
 (<쓰-, 點火)

cf.) 빼쓰(bus)

- ㄴ. 조리(죠리), 소리(소리), 가  
 시(가식), 보디(보디)

[*-grave*] 자음 아래에서의 '으'는 '이'로 변하였다(6ㄱ).<sup>1)</sup> 이러한 음운 변화는 매우 강하게 어형들에 작용했던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빼쓰'와 같은 어형이 있는 것을 보면, 현대 이 지역어에서 화자들에게 이러한 음절 구조 제약은 그리 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6ㄴ)은 역사적으로 '의/의'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되는 어형들인데, 모두 '이'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역사적으로 전설고모음화라는 음운변화가 매우 강하여, 이것이 [*-grave*] 자음 아래에서의 '의>이'라는 음운 변화를 견인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본다.

## (3) 하향 이중모음의 변화

## (1) 애/에

## (7) ㄱ. 새복(새배), 개-

- ㄴ. 열개빗(열에빗), 세-, 메-

## (2) 외/위

- (8) ㄱ. 외, 쇠-, 귀, 쥐, 뛰-  
 ㄱ'. 베(뵈), 매뚜기(뭣도기),  
 빼뿌쟁이(뵈짱이), 비-{부-}  
 ㄴ. 사마구, 방구, 바우

제1음절에서는 각각 'oy>ö, uy>ü'로 변하였다(8ㄱ). 단 순음 아래에서는 약간 양상이 다르다(8ㄱ'). '순음-외(uy)'의 '외'는 '의'로 변한 후, 다시 '이'로 변하였다. 그리고 '순음-외(oy)'의 '외'는 '외(o)'로 단모음화한 후, 비원순화하여 '애'가 되었다.

제2음절 이하에서 '외/위'의 변화는 간단하다. 즉 'ㅣ'가 탈락하는 것이다(8ㄴ). 그런데 이때 이에 선행하여 '외>위'의 변화를 설정해야 타당하겠다.

## (3) 이/의

- (9) ㄱ. 배(뵈), 깨-{씨-}, 캐-{캬-}

1) 단 치조폐쇄음(ㄷ,ㅌ,ㄸ) 아래에서 '으'가 '이'로 변한 예는 찾기 힘들다.

- ㄴ. 히-(회-), 기-(거-), 이자  
(의자), 이사(의사)  
ㄷ. 아그(아히), 느그(너희)  
cf.) 무누, 동오, 거무, 호무 / 조  
리, 가시, 보디
- (10) 물-(問), 쉽-(載), 걸-(步)

이들은 'ㄷ불규칙 용언'이라 불리는 어형들인데, 이 지역에서는 'ㄷ> ㅎ'으로 재구조화함으로써 어간을 단일화한다. 이들은 이미 존재하는 '격음화 규칙, 헝탈락 규칙'에 편승함으로써 기저형을 단일화한 예이다.

먼저 제1음절에서 '의'는 모두 '애'로 변하고, '의'는 '이'로 변하였다. 그런데 제2음절에서는 양상이 위와 다르고 사뭇 복잡하다. 앞에서 살폈듯이 순자음, 원순모음 아래에서는 '의 > 위 > 우'의 과정을 밟았고, [-grave] 자음 아래에서는 '의 > 이'로 변하였다. 이를 제외한 자음이라면 연구개음과 성문음인데 이를 자음 아래에서는 '의 > 으'의 음운 변화를 경험했다(9ㄷ).

### 1.2.9 불규칙 용언의 재구조화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들은 화자들의 어휘부에 부담을 준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용언의 재구조화가 일어나 활용을 규칙화(어간의 단일화)하게 된다. 이러한 규칙화에는 2가지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이미 존재하는 규칙에 편승하는 방향으로 단일화하는 것이고, 다음은 새로운 규칙을 만듬으로써 단일화하는 것이다.

### ① ㄷ불규칙 용언

- (11) ㄱ. 내웁-, 더웁-, 춥-  
cf.) 꼽-  
ㄱ'. 야찹-, 개볍-, 무겁-  
ㄴ. 징-(補), 누흐-(臥)

ㅂ불규칙용언의 재구조화 양상은 형용사와 동사가 다르다. 먼저 형용사의 경우, 1음절 어간은 대개 '웁' 형으로 재구조화한다(예외, 꼽-). 2음절 이상 어간은 그 어형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단 활용양상을 볼 때, 'ㅂ탈락 규칙'을 설정할 필요를 느낀다. 왜냐하면 그 활용양상이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학목	-고	-아/어서	-옹개(으니까)
내웁-	내웁고	내와서	내옹개
야찹-	야착고	야차서	야창개
무겁-	무걱고	무거서	무경개

## &lt; ㅂ탈락 규칙 &gt;

ㅂ → Ø / \_\_\_\_ ]Ast. + V

(ㅂ말음 형용사는 모음으로 시작  
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

그렇다면 ㅂ불규칙 형용사의 경우  
는 새로운 규칙을 만듬으로써 어간을  
재구조화한 예인 셈이다. 그런데 동  
사의 경우는 양상이 약간 다르다. 이  
들은 ‘ㅂ’ > Ø’로 재구조화함으로써  
기존의 규칙(경음화 규칙, ㅎ탈락 규  
칙)에 편승한 어간 단일화를 꾀한 것  
이다.

## (3) 공시적 음운과정

부안 지역어의 공시적인 음운규칙  
을 모두 다루기는 힘들기 때문에 몇  
가지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언  
급하도록 하겠다(여기에는 제시한 어  
형들의 표준어형은 <부록>에 있기  
때문에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 (1) 어미 ‘-아/어’의 교체

이 지역어의 활용어미 ‘-어/아’  
교체는 비교적 단순하다. 그 교체 환  
경은 어간 모음의 종류에 따른다(○는  
자유변이).

(12) ㄱ. 아; 다어서, 쌀어서, 안저서,  
할터서  
어; 머:러서, 머려서  
애; 배:서○배어○비어,

매어○미어, 꿔매서

예; 베어, 째어서

이; 매껴서, 무쳐서, 마셔서,  
대려서

으; 서서

우; 바꿔서, 췄:서

위; 뛰어서, 꿔어서, 뛰어서

ㄴ. 오; 와서, 봐:서, 볼바서, 노  
파서, 보까서, 보듬아서  
외; 쇠아서ㄷ. 사서(사-아서), 싸:서(쌓-아  
서), 야차서(야찹-아서)

어간 내부에 ‘오, 외’ 모음이 있으  
면 ‘아’가 선택되고(12ㄴ), 그 이외  
의 경우는 모두 ‘어’가 선택된다(12  
ㄱ).

다만 기저에서 ‘아’ 모음으로 끝난  
어간이나, 도출과정에서 자음이 탈락  
하여 ‘아’ 말음 어간과 동일한 형태  
를 같게 될 때에는 ‘아’를 선택한다  
고 봄이 좋을 것이다(12ㄷ). 비록 표  
면형에 이들이 드러나지 않아 어느  
것이 선택되느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아’를 선택하여 동일모음탈  
락으로 보는 것이 음성적으로 보다  
타당한 까닭이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어간  
말음이 ‘애, 애’일 때 ‘어’가 표면형  
에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어미  
가 ‘어’ 단독형일 때 특히 자주 나타  
난다. 그리고 ‘배어, 매어’는 각각 자

유변이형 ‘비어, 미어’로도 실현된다  
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어떤 기제에 의해 이러한 실현  
형을 보이는지는 앞으로 계속 연구해  
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 (2) 움라우트

앞에서 통시적 변화로서 형태소  
내부의 움라우트를 언급한 바 있는  
데, 여기서는 형태소 경계에서의 공  
시적인 움라우트를 다루고자 한다.

### (13) 나래기(나락-이), 뒤에미(뒤엄-이),

왜쟁이라고(왜장-이라고), 부새  
기라고(부삭-이라고), 두룸배기  
라고(두룸박-이라고), 또랭이  
(또랑-이), 끄렁이라고(끄렁-이  
라고)

공식적 현상으로서의 움라우트의  
동화주는 주격 조사(계사도 포함)  
'이'이다. 그리고 피동화주는 주로  
'아, 어'이며, 다른 후설모음의 예가  
보이지 않는다. 방언조사가 한정된  
항목에 의존한 질문방식을 취하였으  
며, 자연발화를 많이 접하지 못했던  
끼닭에 다른 후설모음이 피동화주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큰 무리  
이다. 하지만 '아, 어'가 피동화주로  
서 활발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부인 못할 사실이다. 그리고 개재자  
음은 [+grave] 자음이다.

### (3) ㅎ탈락

- (14) ㄱ. 찌어서(찧+어서), 끄너서(끓+어서), 시러서(싫+어서)  
ㄱ'.찌코, 찐는다 // 끈코, 끈는  
다 // 실코, 실른다
- ㄴ. 다간티(닭#한티), 다간마리  
(닭#한마리), 나이고(나#허  
고), 바번다(밥#훈다)  
cf.) 차거다(착+허다)

이 지역어에서 두 가지 기제의 ㅎ  
탈락이 있다.

첫째, 형태소 경계 앞에 ㅎ이 있고  
뒤에 모음이 연결되면 ㅎ은 탈락한다  
(14ㄱ). 그런데 뒤에 비음[ㄴ]이 연결  
될 때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띤다. 먼저  
어간말에 ㅎ이 단독으로 존재하느  
냐, 아니면 다른 유성자음(비음, 유  
음)과 같이 자음군으로 존재하느냐  
에 따라 양상이 다르다. 단독으로 존  
재할 때는 'ㅎ → ㄴ'으로 되는데 반  
하여(찐는다), 자음군일 때는 ㅎ이  
탈락한다.

둘째, 단어경계 뒤의 頭音이 ㅎ일  
때, 앞 단어의 말음이 어떤 자음이든  
지 상관없이 이 ㅎ은 탈락한다. 앞 단  
어의 말음이 순수자음일 때 격음화가  
일어나는 중부방언과 이 점에서 차이  
가 난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를 요하  
는 어형이 바로 '차거다'이다. 이는  
중간에 단어경계보다는 형태소 경계

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착'이 하나의 단어가 될 수 없다.) ㅂ탈락이 일어난다. 이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하다'류 어형들에 유추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 (4) ㅂ탈락

- (15) ㄱ. 더웁다; 더워서, 더옹개  
     어둡다; 어둬서, 어둥개  
     무섭다; 무서서, 무승개  
     야참다; 야차서, 야창개  
 ㄴ. 싸납다; 싸나와서/싸나서,  
     싸나옹개/싸낭개  
     가깝다; 가까와서, 가까옹개

위에 제시한 어형들은 역사적으로

불규칙 활용을 했던 것들로서 형용사라는 범주에 해당된다. 앞에서 동사의 경우는 이와 다르게 재구조화했음을 지적했다(1.2.9 참조). 이들 어형들은 자음 앞에서는 ㅂ이 실현되나,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ㅂ은 탈락하고 만다.

물론 몇개의 예외형들이 있다. 제2 음절 이아에서 '암'으로 끝나는 어형들이 그것인데(15ㄴ), 이들에는 離활 용형이 발화된다. 하지만 이들도 ㅂ 탈락 규칙을 적용한 활용형이 공존하는 것을 보면, 곧 완전히 ㅂ탈락 규칙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휘확산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ㅂ탈락 규칙이 현재 '암'形 형용사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중이라고

	종류	형태	예
조	주격	이/가	나액이(벼가), 보리가
	대격	을/를/~얼/럴	돼지를, 사람을, 밥얼, 무시럴(무우를)
	처격	으, 이/~에	헐적으(할적에), 밀이(밀에), 논이다(논에다), 핵교에
사	공동격	허고/~허구, 랑	나허고, 너랑
	조격	으로	독으로(돌로), 조:리로
	여격	한티, 기다	닥한티, 사람기다(사람에게)
보	주제	은/는/~언/년	서숙은(조는), 토비는(퇴비는), 풋언(팥은)
	단독	만	돔:만(돈만)
	포함	도	보리도
사	출발점	부터/~보텀	날부터(낮부터)
	도착점	꺼정	바꺼정(밭까지)

할 수 있겠다.

## 2. 형태·통사론적 특징

이 지역어의 형태·통사론적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필자의 능력 부족 때문에 불가능하므로, 여기서는 문법형태소들(조사, 어미)의 형태를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조사 및 보조사

대격조사와 '주제' 보조사에서 보이는 자유변이는 '-'의 역사적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을/를, 은/는'에서 '-'는 '-'로 변화하여 '을/를, 은/는'의 변화형 '-'와 공존하면서 자유변이를 하게 된 것이다. '꺼정(anax)'도 이와 동일한 발달을 보인 어형이다. 특이한 형태의 조사로 '기다'를 들 수 있다. 이는 중부방언의 '에게'에 해당되는데, 주로 체언이 [+사람]일 때 쓰이지 않나 싶다. 표에 제시한 예 이외에 다음과 같은 예들이 발견된다.

부모기다(부모에게), 넘기다(남에게)

### [2] 어미

#### (1) 선어말 어미

존경 ; -시-, -개-

시체 ; -걷-, -알/얼-, -드-

시체 선어말 어미는 별로 특이한 것이 없으나 존경 선어말 어미에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이 주목을 끈다. 이는 박양규(1980)에서 보고된 바 있는데, 그 논문에서는 '개'가 출현하는 환경이 앞뒤에 부동사 어미 '-아/어'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지역어에서는 '-개-'의 사용이 그리 생산적이지 못하지 때문에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오게라우, 가게라우' 등 어간 말음이 모음일 때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때 '개' 앞에는 '아/어'가 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와게라우'가 아닌 '오게라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조사를 요한다.

### (2) 종결어미

자료의 부족으로 경어법의 체계를 드러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 논의된 국어의 등급과 비슷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형태들을 대입해 본 것이다. 특이한 점은 '하오체'의 지위가 매우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부방언의 '-요'에 해당되는 '-라우'가 쓰이고 있다. 또 '-온다/는다, -옹가/농가'는 본래 조건변이형(어간말음의 [+vocal]여부에 따라)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점차 '온다, 옹가'의 쓰임이 '는다, 농가'의 자리를 잠식하게

되어 현재 이 지역어에서는 이들이 자유변이하고 있다. 이는 '느'의 기능 약화와 관련있을 듯하며, 다음 예들도 이와 맥을 같이 하지 않나 싶다.

아! 서울서 살구나. (사는구나)  
가드만 안 오드라고. (가더니만)

### (3) 연결어미

-먼~면, -니라고(느라고), -음  
서(으면서), -지, -옹개(으니까), -아  
/여서 등

### (4) 전성어미

관형형 ; -은/-는~언/년

명사형 ; -기

## 3. 어휘 · 의미론적 특징

이 지역어에서 보이는 몇몇 특징적인 어형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 (1) 고자리

'고자리'의 의미 영역은 상당히 크다. 다시말해 중부방언의 '가시, 구더기, 바구미'의 의미 영역을 이 어형이 모두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바구미'와 어원을 같이 한다고 생각되는 '바개미'도 쓰이지만 이는 의미가 축소되어 주로 '보리'에 있는 벌레만을 가리킨다.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중부방언	부안지역어
가시	고자리
구더기	똥꼬자리
바구미(쌀)	쌀고자리
(보리)	바개미

### (2) 근디 ~ 근지줄

이 어형은 표준어의 '그네'에 해당된다. 이는 기원적으로 중세어형 (근두)(뛰는 것)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들의 공통어를 재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리

	해라체	해체	하계체	하오체	해요체	합쇼체
평서문	-온다~ 는다	-아/어	-네,-제		-아/어요~ -아/어라우	~옵니다
의문문	-냐	-아/어	-옹가~ -농가		-아/어요~ -아/어라우	~옹가요~-농가 요,-옴니꺼,-시요
명령문	-아/어라	-아/어	-소		-으쇼,-아/ 어요	~으시쇼
청유문	-자		-세			~읍씨다

고 만약 하향이중모음으로 재구된다면, ‘근지줄’의 구개음화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도 역시 어려운 문제 가 아닌가 싶다.

### (3) 습소

표준어의 ‘황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습소’가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ㅂ’의 존재이다. 다른 방언에서는 대개 ‘ㅎ’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북방언에서 다른 동물들의 ‘수컷’을 나타낼 때에도 ‘습-, 숨-’이라는 접두어가 많이 쓰이는 것을 보면 기원적으로 ‘ㅂ’과 ‘ㅎ’이 어떤 연관이 있지 않나 싶다.

### (4) 기타

돌채(도끼, 도리깨), 모수(모시배), 후타리(울타리), 함(하품), 당갈(달걀), 비들키(비둘기), 말캉(마루), 틀부다(다르다)

### <참고논문>

- 김완진(1975), 전라도 방언음운론의 연구방향 설정을 위하여, 어학 (전북대) 2.
- 박양규(1980), 서남방언의 경어법의 한 문제—이른바 주체존대법에 나타나는 ‘-게-’의 경우 —, 방언 3.
- 이병근(1976), 파생어 형성과 i역행 동화규칙들, 진단학보 42.
- 정인호(1995), 화순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134.

## &lt;부록&gt;

&lt; 어휘 · 음운 &gt;

無標 : 공통

@ : 보안면 # : 하서면

항 목	부안 지역어형	항 목	부안 지역어형
벼	나락 //#나래-이	찧-는다	찐:다 //#찐는다
벼이식	나랑모가지	키	치
째-온다(벼)	짼:다	까불-온다	//#까분다
(장작)	뽀갠다 //#빠갠다	어레미	얼멩이 //@얼개미
뉘	뉘 //#nū	체	치 //@체
챙기	챙기, 수꾸락	곡식	곡썩, 곡썩
보습	보십	깜부기	깜부래기 //@깜재기
쇠	쇠	깨	//@꽤 //#깨
써레	쓰:레 //#쓰:리	팔	풋
거름	뒤엄 //#뒤엠-이	조	서:숙 //#스:숙
비료	//@비루	차조/메조	참두둑
퇴비	토비	메밀	메풀
썩히-온다	썩운다	사-/팔-다	//#산다/판다
농약	노냑 //@농약	무우	무시
호미	호맹이	왜무우	왜무시 //#애무시
꽝이	//@꽝이 //#깽이, 파니	시래기	시라구 //@실가리
쇠스랑	소시랑	감자	하리감자, 가을감자 //@하지
갈고리	갈:구리	오이	감자 //#감재
벗단	//#나락다발	김치	외 //@물외
벗가리	나락베늘	왜간장	지
리어카	니야카, 끌꾸라마	된장	왜간장 //#왜쟁-이라고
짚-이	지푸라기 //@지푸래기	고추장	된장
새꽈기	//#회:기, 흰:대기	매주	//#고창
새끼	새내키	부추	매주
꼬-았다	꽈:따	김	술:
도리깨	도리깨 //@돌채 #도루채	가마	짐
광주리	강주리 //@광지리	조리	//#가마숏-이라고
절구	도구통	일-는다	조:리
메	메, 메갱이	밥-이	인:다 //#이어서
쐐기	소악질, 쐐악질 //#회악	밀기울	비비 //#뱁-이
확	통, 절구 //#학독, 풀독	수제비	밀줄
방아	방애		수제비 //@수지비

항 목	부안 지역어형	항 목	부안 지역어형
라면	나면	종이	조이 //@종우
튀밥	튀밥	말-온다	만:다, 몬:다
엿기름	엿찌름	바르-온다	바른다
식혜	감주, 시캐 //@시캐	칠하-온다	//@칠언다, 치린다, 치리라 (칠하-어라)
먹하-온다	//#먹기다(먹해다)		
흰떡	//#흰떡	사다리-에	사다리예 //#사르대
시루	시리	이영	//#나래 엮어서
시루번	시리번 //@시리뻔 //#시리 뻔	용마름	용마람
부엌	//@정지 //#정기	틀-온다	튿다
아궁이	//@부석작 //#복:작, 부석- 이라고	집 이-온다	//#이:야여(이어야 해)
부뚜막	부뚜매기 //@부또막	기둥	지동
그릇	그륵	주춧돌	주추
고무래	당그래	기스락풀	집뜨랑풀 //#집시랑풀
부삽	//@불주걱	담	담
화로	화리 //@하리, 화리	울타리	우타리 //#후타리, 훌타리
부시	부시독	뒤곁	뒤안
부싯깃	부시쳇 //#쑥집	우풀	샘: //@시암 //#새암
그을음	끄:률 //#끄시름	두레박-이	두롬백-이라고
그을렀다	끄:률찌따 //@끄실러따 //# 끄시른다	동이	동우 //#물동오
넙-다	내웁다	기르-온다	기른다
썩유	쇠규, 세규	또아리	또가리
살강-이	살강, 살개이	개울	개굴창
시렁	선반, 시렁	도랑	또랭-이
꿰	//@괴 //#괴깍, 설깍	빨래	빨래
배개	비개 //@배개	빨-온다	빤다
베-온다	빈다	거품	버큼
이불	이불	다리미	대리미
깔-온다	깐:다	허리띠	허르끈
무늬	무누 //#무니	두루마기	두루매기, 두루마기
마루	마루 //@마리, 말캉	대님	댄님 //@댕임
마루에	마루에	짚신	집씬 //#집씨기
벽-이	벽, 벽-이	삼-는다	삼:는다
		나막신	나막션 //#나무깨
		풀무	풀미
		끼-온다	쩐-다 //#찡군다

항 목	부안 지역어형	항 목	부안 지역어형
김-는다	진:다	원손/바른손	외악손/오른손
꿰매-온다	꿰맨다 ///#꺼맨다	마디	마디 //#@매두
가위	가새	엉덩이	불기짝, 궁뎅이 ///#넙덕지
베	베	무릎	물팍
모시	//#모수	가슴	가심
길쌈	질쌈	뼈	뼈 //@뼈 ///#뼈다구
베를	베를	사마귀	사마구
바다	바다 //#@보디	벼침	벼듬 (찐다)
다듬이풀	다님이똑	기미	지미
누에	뉘에	여드름	이두름
고치	꼬치 //#@꼬초	홍역	홍진 ///#호녀, 손남
번데기	뻔데기	병원	병원
오디	오디개 ///#오지개	의사/醫院	이사, 이원 ///#으사
머리카락	머리카락 ///#멀크락	한약	효엄, 숨:(봤다)
가마	가르매, 가매	사례	사례
모자	모자	들었다	들려따 //#@들리따
태	테	하품	함:
胎	태	방귀	방구
턱	텍, 텍가리	뀌-온다	뀐다
수염	쉬염 //#@ʃɪ:m	오줌	오줌 //#@오침
눈	눈	마렵-다	마렵다
다래끼	다래끼 //#@다리끼 ///#다락	뉘-온다	뉘:다 //#@새운다
티	티	기저귀	지지구 //#@지주개
입술	입술 //#@입술 ///#입설	아이	애 //#@아그덜
쥐-온다(膣)	쥔:다	너희(들)	너그(덜)
혀	서	제집애	지지배 //#@지지바
귀	귀	소꼽질	바끔사리 ///#빠끔사리
듣-는다	듣는다 ///#들른다	고누	진뉘 //#@꼬노
귀먹거리	귀먹팡구	제기	제기 //#@좌끼
세수대야	세수대양	祭器	제기
목욕	액, 모욕	그네	근지(暉) ///#근디
얼레빗	얼기빗 ///#어리빗-이라고	옻놀이	윤:노리
참빗	참빗 //#@챙빗	도	도
손	손	개	개

항 목	부안 지역어형	항 목	부안 지역어형
결	쥘, 결	이웃에	//유:제
윷	舛	마을	동네
모	묘	마을간다	모실간다
화투	//#하토	남의집	너무집
五光-이		옛날이야기	옌날얘기
어머니	어머이, 오매 //#어머니	귀신	구신, 귀신
아버지	아부지	계	계
형	성	얼마	얼매
아우	동상, 동생, 아우	일원	일원
아우탄다	//@아시탄다	십원	십원
아들	//@아달	백원	백원
맏아들	큰아들	천원	
효자	소자, 희자 //@효자	대장간	대정간
효녀	희녀	모루	마루
결혼	//#호닌, 예식	마리(바리)	마리 //#바리(소)
장가	장개	포기	폭 //#꾀기
내외간	내외간, 내위간 //@내우간	병	병
남편		朋	朋
훌아비	호래비	되(升)	되
훌어미	파:부	한말가웃	//#말가웃(지기)
여편내	예편네, 예핀네	세-온다	신:다
며느리	메누리	하나	하나
사위	사우	둘	둘:
도련님	되린님	셋	셋
잔치	잔치	넷	넷
환갑	황갑, 황갑	다섯	다섯
생일	생일	여섯	여섯
초상	초상	일곱	일곱
부의	부이금	여덟	야덟
상여	생이 //#생애	아홉	아음
제사	지:사	열	열
매(食)	매 //#매전지	열하나	열아나
향불	상뿔, 상나(향내)	스물	수물
예의		설흔	서툰
		마흔	마운

항 목	부안 지역어형	항 목	부안 지역어형
쉰	쉬운	바구미	바개미 // #(보리)바:개미 (쌀)
예순	예순		쌀고자리
일흔	이론	굼벵이	굼:벵이
여든	야든	하루살이	하리사리
아흔	아은	거미	그:무
하루	하루 // #하리	메뚜기	메뚜기
이틀	이틀	여치	연치
사흘	사을	진드기	진동개
나흘	나을	쐐기	쐐기, 쐐기 // #쐐:기
닷새	닫새	소	소
엿새	엿새	황소	황소, 황소 // @황소 // #습소
이래	이래	송아지	소양치 // @쇠아치
여드레	야드레	고삐	보구리풀 // #꼬삐, 꾀삐
이호례	아으레	멍에	애냉기 // @동에
열흘	열을	외양간	외양간
물고기	물꽈기	구유	구시 // @소죽통
낚시	낙수질 // #낙기질	여물	여물 // @yimul
피라미	눈금자리, 송사리	쇠죽	쇠죽 // @소죽
미꾸라지	미꾸라지 // @미꾸람지	풀	갈
메기	미:기	떼(群)	떼
膾	회평	떼(時)	때
가오리	가오리, 흥애	말	말
게	게 // #기:	염소	멧생이 // @멧소
다슬기	// @고동 // #물꼬동	고양이	팽:이
새우	새옹개, 새빙개 // @새우, 새	닭-한테	닭 // @닭안티
	비	닭장	닭장
서캐	서캐 // #서카래	닭똥	닭기똥
벼룩	베룩	달걀	// @ 달걀 // #당걀, 다걀
모기	모:구	노른자위	// @ 노랑조시
파리	포리	흰자위	// @ 흰조시
쉬	쉬 (실린다)	벼슬	벼실
가시	벼락찌 // #고자리	병아리	뱅아리
구더기	고자리 // @똥꼬자리	모시	모시
지렁이	그:시랑 // @지렝이	거위	때까승, 때까우
거머리	거두락지 // #그:마리		

항 목	부안 지역어형	항 목	부안 지역어형
쥐	쥐	뿌리	뿌리 //#뿌렁구, 뿌렁뎅이, 뿌
박쥐	박쥐 //#박쥐		렝지
토끼	토끼	그루터기	끌텅 //#끄伧-이라고
용-이	용이	술가리	술끼리
뱀	배암 //@비암 //#배암	갈퀴	갈키, 갈쿠
원숭이	원생이 //#원쉼이	묘	뫼, 꾀뚱
돼지	돼:지	바위	바우
여우	여시 //@yifi (돌렸다)	이끼	바우순, 이끼
두더지	뒤지지 //뒤지기	모래	모래
뚫-는다	멸른다 //#뜯:다, 뜰코	흙	흙
솔개	소리개	아침	아침 //#아적
까마귀	까마구	새벽	새복
까치	깐치	낮	낮 //#경심(점심)
꿩-이	꿩이	저녁	저녁
비둘기	비둘루	해거름	//#해거름
나풀	너풀 //@나풀	내일	내일
쇠-온다		모래	모리
취	취	글피	글피 //#글패
머위	머우	그글피	그글피 //#그글패
냉이	나숭개 //냉:이	어제	어제 //#어저고
달래	달퉁개	그저께	그저께 //#그저고
笞바귀	//@쓴너풀	그그저께	그꼬저께 //#그꼬저고
질경이	째뿌쟁이	섣달그믐날	섣달그믐날
개암		한가위	
머루	머루	벼락	벼락
고욤	괴욤	우박	우박
밤	밤:	가을	가실
겁데기	겁닭	겨울	저울
보늬		위	우
감	감:	위-로	우그로
떫-다	//#며렵다	아래	아래
자두	자두 //#외앗	밀	밀 //#미티(밀에)
귤	귤 //#걸	앞	앞
참외	외, 참외	뒤	뒤
나무	나무	학교	핵교

항 목	부안 지역어형	항 목	부안 지역어형
의자	이자		
교장	교장		
교육			
파하-온다			
계획	개워 // #계옥		
회계	회기, 회게		
계산	개산		
교회	괴오, 교외		
교통	교통		
표	표		
버스	빠쓰		
벌새	벌새		
빠듯이			
모두	모도 // #모다		
자꾸	자꼬		
하도	하도		

## &lt; 활용 &gt;

항목	-온/는다	-드라(더라)	-아/어서	-옹개(으니까)
배-(벼)	밴:다	배:드라	배:서 //#배어~비어	뱅:개
매-	맨:다	매:드라	//#매어~미어	맹:개
베-	빈다 //#벤다	비드라 베드라	벼:서 베어	빙개 벵개
말리-	말른다 //#말린다	말류드라 말리드라	말류어서 말려서	말름개 말링개
묶-	뭉는다 //@谮맨다	묶뜨라 谮매드라	묶께서 谮매서	묶꽁개 谮맹개
꼬-	꼰:다	꼬:드라	꽈:서	꽁:개
메-	민다	미드라	며:서	밍개
지-	진다	지드라	저서	징개
실-	실른다	실트라	시러서	시룽개
끌-	끌른다	끌트라	끄러서	끄룽개
훑-	훑른다	훌뜨라	훌터서	훌룽개
찢-	찢:다 //#@찐는다	찌트라	찌어서	찡:개
넝-	넌는다	너트라	너:서	넝:개
얹-	연는다	연뜨라	연저서	연징개
울리-	울린다	울리드라	울려서	울링개
내리-	내린다	내리드라	내려서	내링개
놓-	논는다 //#논:다	노트라	놔:서	농:개
사-	산다	사드라	사서	상개
팔-	판다	팔드라	파러서	팡개
고르-	꼴른다	꼴르드라	꼴라서	꼴룽개
깎-	깎는다	깎뜨라	깎까서	깎꽁개
벌-	번:다	벌:드라	벌어서	벙:개
바꾸-	바꾼다	바꾸드라	바째서	바꽁개
나누-	나눈다 //#노눈다	나누드라 노누드라	나눠서 노놔서	나눙개 노눙개

항목	-온/는다	-드라(더라)	-아/어서	-옹개(으니까)
맡기-	매긴다	매끼드라	매껴서	매깅개
캐-	캔다	캐드라	캐서, 캐어	챙개
쇠-(나물)	쇠알다	쇠드라	쇠아서	쑹개
씻-	哂는다	哂드라	哂쳐서	싸침개
끓이-	끄린다	끄리드라	끄려서	끄렁개
삶-	//@끼린다	끼리드라	끼려서	끼링개
	//@쌈:는다	쌈:뜨라	쌈머서	쌈뭉개
무친-	무친다	무치드라	무처서	무칭개
먹-	먹는다	먹뜨라	먹거서	먹궁개
볶-	볶꾼다	복뜨라	볶까서	보꿍개
지지-	//#봉는다			
	지진다	지지도라	지저서	지징개
일-(쌀)	이른다	이르드라	이러서	이롱개
안친-(밥)	//@#일른다	일트라		
	양친다	양치드라	양쳐서	양칭개
때-	//@#안친다	안치드라	안처서	안칭개
	땐다	때드라	때:서	땡:개
태우-	태운다	태우드라	태워서	탱:개, 태옹개
푸-	푼다	푸드라	퍼서	풍개
담-	담:는다	담:뜨라	다어서	다롱개
차리-(상)	채린다	채리드라	채려서	채링개
치우-	친:다	치드라	치여서	칭:개
쑤-(죽)	쑨다	쑤드라	쑤:서	쏭개
따르-	딴:다	딸:드라	따러서	따롱개//땡:개
붓-	//@딸른다			
	붓는다	붓드라	부서서	부승개
젓-	젓는다	젓드라	저서서	저승개
마시-	마신다	마시드라	마셔서	마싱개
찌-(肥)	찐다	찌드라	찌서	찡개
고푸-	고푸다	고푸드라	고파서	고풍개
배부르-	배부르다	배부르드라	배불러서	배부동개
달-(甘)	달다	달드라	다러서	다롱개//당개
시-(酸)	시다	시드라	시어서	싱개
맵-	매울다	매울드라	매워서	매옹개

황목	-온/는다	-드라(더라)	-아/어서	-옹개(으니까)
짜-	짜다	짜드라	짜서	짱개
싱겁-	싱겁다	싱겁드라	싱거서	싱경개
뜨렸-	뜨렸다	뜨렸드라	뜨려서	뜨령개
	//@#떠렸다	떠렸드라	떠려서	떠령개
빠-	빤다	빠리드라	빠려서	빠릉개//팡개
헹구-	헹긴다	헹기드라	헹겨서	헹깅개
다리-	대린다	대리드라	대려서	대링개
입-	임는다	입드라	이버서	이봉개
벗-	번는다	벗드라	버서서	버승개
꿰-	꿰:다	꿰:드라	꿰어서	꿩개
	//@꿰:다	꿰:드라	꿰어서	꿩개
꿰매-	꿰맨다	꿰매드라	꿰매서	꿰맹개
깁-	진:다	진:드라	지어서	징:개
	//@진:나			
감-	감:는다	감:드라	가어서	가뭉개
감긴-	개긴다	개기드라	개겨서	개깅개
빈-	빈는다	빈드라	비서서	비승개
짓-	진는다	질드라	지어서	징:개
이-(지봉)	안:다	이:드라	여:서	잉:개
엮-	엮는다	엮드라	엮어서	여꽁개
풀-	풀다	풀드라	트려서	트릉개//릉개
세우-(立)	세운다	세우드라	세워서	세옹개
쌓-	싼:다	싸드라	싸:서	쌓:개
허물-	허문다	허물드라	허무려서	허몽개
말-(종이)	문:다	물:드라	모라서	모룡개//몽:개
찢-	찢는다	찢드라	찌져서	찌징개
자르-	짜른다	짜리드라	잘라서	짜렁개
	//@#짜린다			
썰-	쓰린다	쓰리드라	쓰려서	쓰렁개
	//#써린다	써리드라	써려서	써렁개
칠하-	치린다	치리드라	치려서	치렁개
바르-	바린다	바리드라	발라서	바렁개
두드리-	뚜두린다	뚜두리드라	뚜두려서	뚜두렁개
열-	연:다	열:드라	여러서	여룡개
닫-	닫는다	닫드라	다더서	다등개

형목	-은/는다	-드라(더라)	-아/여서	-옹개(으니까)
낳-	난:다 //#난는다	날드라 나트라	나:서	낳:개
키우-	키운다	키우드라	키워서	키옹개
기-	긴:다	기:드라	기여서	깅:개
걸-	건:다 //@걸른다	걸드라 걸트라	거려서	겅:개
뛰-	뛴다	뛰드라	뛰어서	거룽개
달리-				뒹개
쫓-	쫓는다	쫄드라	쪼차서	쪼칭개
때리-	//#때린다	때리드라	때려서	때링개
울-	운:다	울:드라	우러서	우룽개
달래	//#달갠다	달개드라	달개서	달깽개
웃-	운는다	온드라	우서서	우승개
안-	보듬는다	보듬뜨라	보드마시	보드몽개
비비-	//@비빈다	비비드라	비벼서	비빙개
마렵-	//#마립다	마립드라	마려서	
뉘-	뉘:다	뉘:드라	뉘어서	눙:개
찌-	//#찌:다	찌:드라	찌어서	찡:개
보-	본다	보드라	봐:서	봉개
듣-	//#듣는다	듣드라	드러서	드룽개
묻-	문는다 //@물론다	묻드라 물트라	무러서	무룽개
잡-	//#잡는다	잡드라		
들-	//#듣다	들드라		
밟-	//@봄는다 //#밤는다	봄드라 밤드라	불바서 발버서	불봉개 발봉개
신-				
삼-(신)	삼는다	삼:뜨라	삼어서	사몽개
눕-	눈:다 //#눈는다	눕드라	누어서	농:개
서-	//#순다	스드라	서서	승개
앉-	//#안는다	안뜨라	안저서	안중개
다르-	//@달부다 //#풀부다	달부드라 풀부드라	달버서 풀버서	달붕개 풀붕개
같-	같다	같드라	가터서	가통개

항목	-온/는다	-드라(더라)	-아/어서	-옹개(으니까)
울-	//@울타	울트라	울라서	오롱개
그르-				
周恩-	//#조타	조트라	조와서	周恩개
나쁘-	//#나쁘다	나쁘드라	나빠서	나쁘개
많-	만타	만트라	마너서	마능개
적-	쩍다	쩍드라	쩌거서	쩌긍개
맞-	만다	만드라	마저서	마증개
괜찮-	//#괜찬타	괜찬트라	괜차녀	괜차능개
사납-	싸납다	싸납드라	싸나워서	싸나옹개
			//#싸나서	싸낭개
순하-				
무섭-	무섭다	무섭드라	무서서	무성개
가깝-	가깝다	가깝드라	가까와서	가까옹개
	//#가깝다	가깝드라	가차서	가창개
멀-	//#멀:다	멀:드라	머려서	멍:개
덥-	더울다	더울드라	더워서	더옹개
춥-	춥다	춥드라	추워서	충:개
닭-	막다	막드라	말거서	말긍개
탁하-				
무겁-	//#무겁다	무겁드라	무거서	무겅개
가볍-	개볍다	개볍드라	개벼서	개벙개
높-	//#높다	높드라	노파서	노풍개
낮-	//#나낮다	나낮드라	나차서	나창개
깊-	집:다	집:드라	지퍼서	지풍개
얕-	얕하다	얕드라	야차서	야창개
	//#아트다	야뜨라	야터서	야통개
빡-	빡다	빡드라	발거서	발궁개
어둡-	어둡다	어둡드라	어둬서	어등개
좁-				
넓-	//#넓풀다	넓풀드라	넓튀서	넓룡개
풀-	풀는다	풀트라	끄너서	끄능개
잇-	잇는다	잇드라	이서서	이승개
핥-	//#핥른다	핥뜨라	핥터서	핥통개
꼽-	꼽:는다	꼽:뜨라	꼴마서	꼴몽개
뜯-	//#뜯룬다	뜯트라	뜨리서	뜨룡개

항목	-은/는다	-드라(더라)	-아/어서	-옹개(으니까)
젖-	//#천는다	절드라	저저서	저징개
돌리-	돌린다	돌리드라	돌려서	돌링개
사리-	살륜다	살류드라	살류 + 서	살퉁개
썩히-	썩쿤다	썩쿠드라	썩꿔서	썩쿵개
하-				
잘하-				
착하-	차거다	차거드라	차겨서	차경개
파하-				
빨갛-	빨거다	빨거드라	빨겨서	빨겅개
하얗-	//#흐거다	흐거드라	흐겨서	흐겅개

(정리·작성자: 정인호)

## 현대작가반 학술답사 보고서

### 1. 결단식 및 편성

88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에 이어 7번째로 시도된 현대작가반의 학술 답사는 1995년 4월 24일 16시에 2동 202호에서 예비모임 및 결단식을 가지고 조편성 및 임무분담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번 학술답사의 대상 작가인 만해 한용운과 이문구의 고향인 충남 홍성, 보령 일대에 대한 간단한 논의가 있었다. 현대작가반의 조편성,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 # 편성

지도교수: 김용직, 한계전, 박동규,  
조남현, 권영민 선생님

#### 담당조교: 홍재범

참가자: 정선태, 김주현, 이병호,  
방민호, 권보드래, 김민정(이상 박사  
과정 6명), 손정수, 김석권, 김석봉,  
김미영, 천정환, 전봉관, 윤대석, 고하  
영, 노세경, 강명효, 임재서, 우정권,  
김승구, 박주현, 이현석, 김지영, 김지  
영, 유주영, 가브리엘(이상 석사과정  
19명), 조영남, 서형범, 이수형, 안준  
호, 이경재, 박진우, 김백수(이상 학  
부과정 7명)

#### # 답사기간

1995. 4.26-1995. 4.28 (2박 3일)

# 조사대상작가: 만해 한용운과 이  
문구

# 조사대상: 충청남도 홍성, 보령  
일대

### 2. 본조사 및 일정

4월 26일 서울 반포 뉴코아백화점  
구판 정문에 집결하여 당일 8시 전  
세버스편으로 1차 조사 대상지인 충  
청남도 홍성으로 출발하였다. 오후 1  
시에 홍성에 도착하여 일차로 추사  
김정희 선생의 고택을 방문하였다.  
답사자들은 고택과 그 옆에 있는 조  
묘를 둘러 보았다. 이후에는 김대건  
신부의 성지를 답사하였다. 성지 곳  
곳에 박해받았던 초기 기독교의 모  
습들이 모자이크로 처리되어 있어  
답사자들의 눈길을 모았다. 2시 30  
분쯤에는 만해시비에 도착하여 둘러  
보았다. 권영민 선생님의 말씀에 따  
르면, 이곳은 시인이자 독립투사였  
던 만해의 열을 기리기 위해서 도차  
원에서 조성한 공원이라고 한다. 이  
후 답사일행은 발걸음을 옮겨 홍성  
읍내에 소재한 해미읍성 주위를 돌

아본 후 예산 수덕사로 옮겨 답사 첫날의 고단한 여장을 풀었다. 저녁 식사 후 8시부터는 첫날의 주제발표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이수형이 만해 연보를 발표하였고, 이후 전봉관의 「만해시의 에로티즘 연구」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 발표는 죠르쥬 바파이유가 <<에로티즘>>에서 제시한, 죽음을 넘어선 연속성의 회복으로서의 에로티즘이라는 견해를 중심으로 만해의 시를 분석해 본 것이다. 주제발표 이후 교수님들과 학생들 사이의 토론이 이어졌고, 한계전, 권영민 교수님으로부터 그동안의 만해연구의 흐름과 만해에 얹힌 뒷얘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첫날의 주제발표는 2시간남짓 계속되었다. 예년에 비할 때 많은 교수님들이 답사에 참여하셔서 풍성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점은 답사자들에게는 큰 수확이었다. 공식적인 답사일정을 마치고 10시부터는 첫날의 답사일정을 평가하고, 현대문학 전공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뒷풀이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튿날 아침 홍성읍 내에 소재한 만해공원을 비롯하여 읍내를 둘러보는 것으로 둘째날의 답사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둘째날의 답사장소인 대천으로 향했다. 점심식사 후 3시부터는 이 지역출신 작가인 이문구 선생을 초대하여 그의 파란많은 인생역정

과 소설창작에 얹힌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이선생과 학생들간의 질의 응답시간이 있었다. 학생들은 주로 70년대 연작소설의 형태로 써여진 <<우리동네>> 연작의 창작배경, 80년대 군사독재 치하에서 이선생이 창간했던 <<실천문학>>과 실천적 행위,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매월당 김시습>>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 이선생은 시종일관 진지하고 열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어 답사자들은 감명을 받았다. 이후 방민호의 이문구 소설의 문체의 특징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 발표문에서 방민호는 이문구 소설이 판소리사설이나 이 지역 출신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충남지역 사투리를 풍부하게 구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꾸고, 이어 토론을 전개했다. 작가와의 만남 시간은 6시까지 계속되었다. 이후에는 보령시 부시장이 방문하여 답사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마지막 날에는 간단하게 답사평가를 하고, 오후 2시 30분 열차로 귀경하여 95년 현대작가반 답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 3. 전체평가 및 해단식

5월 13일 오후 4시 2동 202호에서 이번 답사를 총괄하는 전체평가회가 열렸다. 여기서 조교 홍재범이 현대작가반의 활동상황을 보고 평가했다.

올해 답사에서는 협업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짐으로해서 단순한 유적답사가 중심을 이뤘던 예년과는 달리 답사자들은 책속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번 답사가 가져다 준 성과였다.